

주민발의안 서명운동, 다민족 협력 통해 박차를 가하다



TVNext와 메이크 캘리포니아 골드 어게인의 공동 주최, 20여 개 단체의 협력으로 TIME TO STAND 행사가 3월 16일(토)에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개최되어 거주 아동 보호 발의안 서명 운동의 중요성을 알렸다. ©기독일보

4월 중순에 마감되는 주민발의 청원서 서명운동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다시 힘을 모으고 있다. 주민발의 청원서 서명운동본부(대표회장 한기홍 목사)는 여러 한인 마트를 섭외하여 거리 서명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서명운동본부 실행위원장 강순영 목사에 의하면 CMF 선교원 김철민 장로가 섭외

한 가든 그로브 아리랑 마켓 입구 서명운동이 지난 3월 20일부터 시작되었고, 에드워드 구 장로와 강순영 목사가 섭외한 LA 코리아타운 6가에 있는 H마트 입구에서도 곧 서명운동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로써 서명운동본부가 운영하는 마켓 입구 서명운동은 총 9개의 마트로 확산된다. 현재 서명운동이

진행되는 마트는 LA 김스전기, LA 한남체인, LA 6가 H마트, 소스몰, 부에나팍 시온마켓, 부에나 팍 한남체인, 홀러론 아리랑 마켓, 토렌스 한남체인 그리고 가든 그로브 아리랑 마켓 등이다. 대부분의 교회가 서명을 마친 상황에 마켓 입구 서명운동은 새로운 활로다. 현재 서명운동본부는 제2

차 강화작전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교회마다 다시 서신을 발송하고, 활발한 열심있는 교회들이 마켓 서명운동에 동참을 요청하며 성도들이 서명용지를 들고 교회 밖으로 나가 서명을 받아 오게 하는 운동이다. 또한, 아동보호 주민발의안 청원서 서명 운동본부는 4월 13일 마감까지 필요한 서명을 모으기 위해 많은 자원 봉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LA 지역 자원봉사자가 필요한데 자원봉사에 관하여는 사무총장 강태광 목사(323 578 7933)에게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지난 주말인 16일 주님의 영광교회(신승훈 목사)에서는 TVNEXT(다음세대 가치관 정립 & 보호단체 김태오 목사/새라킴 사모 공동대표)와 '메이크 캘리포니아 골드 어게인'(Make California Gold Again- Sarah Stephens)의 공동 주최하고 20여개 이상의 다민족 단체들의 협력한 가운데 <TIME TO STAND> 행사가 개최됐다.

이 행사에는 11월에 있을 대선 후보들도 참석하여 서명 운동에 힘을 더해주었다. 탈성전환자 클로이 콜(Chloe Cole), 성전환수술 이후 자살로 딸을 잃은 애비 마티네즈(Abby Martinez), 아서 샤퍼(Arthur Schaper, Mass Resistance 현장 이사), 마누 그레고리안(Manuk Gregorian, Leave Our Kids Alone Movement) 등이 메시지를 나눴다. 평범한 톱보이였던 클로이 콜은 소셜 미디어와 카툰 등의 영향으로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으며 12살 때 상담가, 의사들을 만나 상담을 받았을 때, 그들은 "의학적 수술을 받지 않으면 자살 할 것"이라며 부모를 조종했고, 결국 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나이도 되지만, 가슴을 잃었고 남성호르몬을 투여하고 사춘기가 차단되었으며, 그 결과 "슬픔을 견딜 수 없었으며 성인이 되고, 미래를 가질 가능성, 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자신의 모든 정체성을 상실했다"고 성전환 수술과 젠더 이데올로기의 폐해를 알렸다. → 2면에서 계속

미 성서공회가 운영하던 대형 박물관, 3년 만에 폐쇄

미국성서공회(ABS)가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본사에 위치한 박물관 '신앙과 자유 발견 센터'를 개장한 지 약 3년 만에 폐쇄할 예정이다. 이 박물관 유지에는 약 6천만 달러(약 803억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크리스천포스트(CP)는 "ABS가 18일 신앙과 자유 발견 센터의 운영이 오는 4월 1일 종료될 예정이며, 공개 방문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은 3월 28일이라고 밝혔다. 3월 28일 이후 센터 방문 티켓을 구매한 사람들에게는 전액 환불이 이뤄진다고" 관련 소식을 전했다.

ABS는 폐쇄 이유로 '구조적 한계', '코로나19 봉쇄의 영향',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 등을 꼽았다. ABS의 수익명세서에 따르면, 해당 센터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티켓 판매로 약 54,000 달러(약 7,227만 원)의 수익을 올렸으나, 총 운영 비용은 약 1,100만 달러(약 147억 2,000만 원)에 달하는 등 처음부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협회 회장 겸 대표가 된 제니퍼 홀러론(Jennifer Holloran)은 성명을 통해 "신앙과 자유 발견 센터는 개관 이후 뛰어난 학습과 영감의 장소 역할을 해 왔다"며 "우리는 공개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형식을 통해 콘텐츠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재구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센터의 전무 이사 롭 윈더링(rob Wonderling)은 "신앙과 자유 발견 센터에서 봉사하며 수 년 동안 센터의 중심에서 영감, 동참, 개인적인 발견을 촉발한 다양한 방식들을 목격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 센터는 성경의 중요성을 공유하기 위한 혁신적 비전이었으며, 혁신적으로 이 사명을 수행해 온 직원들이 자랑스럽다"고 했다. 2021년 5월에 개관한 해당 센터는 필라델피아의 인디펜던스 몰(Independence Mall)에 위치해 있으며, 다양한 종교적 견해를 가진 이들에게 기독교가 미국 역사에 미친 영향 등을 교육해 왔다. 박물관은 2021년 7월 도시의 연례 행사인 '와와 환영 축제'(Wawa Welcome America Festival)에 맞춰 약 700평 규모의 대화형 갤러리 개관식을 열었다. 강혜진 기자



신앙과 자유 발견 센터 내부. ©faithandliberty.org/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미국 ↔ 한국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은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 / 부동산법 ■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리밍에서 자유로워지는 영언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태양광, 솔라!!
 2024년 대박
 ☑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 연방ITC: 30% 이상
 ☑ 솔라 설비의 평가상가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2024 OC교계연합 부활절연합예배

예수 부활하셨네
 “그가 말씀하시던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마28:6

일시 2024년 3월 31일(주일) 새벽 5시 30분
 장소 **나침반교회** (민경엽 목사 시무)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강사 **권혁빈 목사** (씨드교회 시무)
 문의 (714)722-4805
 회장 심상은 목사 (갈보리선교회 시무)

OC교계 올해 다양한 행사 계획...부활절 예배는 연합으로

부활절 연합예배, 나침반교회 4월 효사랑 글짓기, 6월 성가 연합 합창제, 7월 세계선교 대회, 8월 특새, 사모 블레싱

OC 교계가 연합해 부활절예배 및 신년 기자간담회를 15일 오전 11시에 갈보리선교교회에서 열었다.

OC교회협의회는 지난 3일 고 박재만 회장이 별세한 가운데 공석이 된 회장의 자리를 직전회장인 심상은 목사(갈보리선교교회)가 이어간다고 밝혔다.

부활절 연합예배는 오는 31일 오전 5시 30분에 나침반교회(민경엽 목사)에서 열리며, 강사로는 권혁빈 목사(씨드교회)가 서게 된다. 예배는 오전 6시 40분에 마친 후에 조찬이 준비된다. 권혁빈 목사는 최근 2년 동안 개척교회에 6만여불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예배는 OC교



OC 교계가 연합해 부활절예배 및 신년 기자간담회를 15일 오전 11시에 갈보리선교교회에서 열었다. ©기독일보

회협의회, 오렌지카운티장로협의회, 오렌지카운티 목사회, 오렌지카운티한인여성목사회, 오렌지카운티기독교전도회연합회가 공동 주관으로 열린다.

OC교협은 법과 교회 세미나를 3월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주님의빛교회(주혁로 목사)에서 진행했다. 또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진행

되는 세계선교대회를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500여 명의 선교사 자녀들이 방문하는 이번 대회에 지역교회를 연결해 이들의 숙식을 돕는다. 오는 8월 1일부터 24

일까지는 제 3차 영적각성 특별 새벽예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OC교협은 목회자 세미나를 8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은혜한인교회에서, 9월 8일에는 사모 블레싱을 개최할 계획이다.

효사랑선교회(김영찬 목사)는 청소년 글짓기 대회를 매년 4월 열고 있다. 김영찬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자기 정체성을 찾아주도록 돕는 행사이다. 70-100명이 참여하며 우수상, 대상 등 교협 회장이 직접 이들에게 상을 수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오렌지카운티기독교전도회연합회는 6월 2일에 성가 연합 합창제를 은혜한인교회에서 10개 교회가 참여해 개최한다. 하반기에는 선교사 자녀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를 10월 14일에 개최한다. 전도회연합회는 매일 강사를 초청해 조찬 기도회를 가지고 있다. 토마스 맹 기자

감사한인교회 41주년 기념 임직예배, "임직자의 사명, 교회를 교회되게"

감사한인교회가 창립 41주년을 맞아 3월 17일(주일) 오후 4시에 본당에서 41주년 기념 임직 감사예배를 드렸다.

최에드(Ed Choi) 목사의 기도로 시작된 임직 예배 이상준 목사가 <교회를 교회되게>(행 6:1-7)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는, "교회 안에 두 그룹으로 갈라져 내적 분열이 일어났다. 사도들은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긍휼 사역에 더 힘쓰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겠다'고 말한다. 영적인 우선순위를 정하고 역할을 명확하게 분담했다"며, "교회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최우선, 그 우선순위와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모든 사역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직분자들을 향해, "사역이 우선되어 예배와 기도, 말씀을 통한 시해서는 안 된다. 은혜의 공급 없이 어떤 사역도 이루어질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체험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다. 하나님에 내 삶을 아름답게 인도했다는 은혜의 고백이 있어야 내가 또 다른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 있다. 은혜의 공급함이 없이 사역하면 자기 공로에 빠진다"며 임직자들을 권면했다.

이어서 초대교회의 임직자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직분

을 세운다. 둘째, 교회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할 사람을 세운 것이다. 셋째, 성도들과 화평하고 존경 받는 사람을 세운 것이다. 넷째, 사역에 대해 열정이 있는 사람을 세운 것이다.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 그 사역을 하는 것이다."

설교에 이어 총무위원장 김영필 장로가 교회 연혁 및 임직자를 소개했다. "1983년 3월 15일 김영길 목사님과 함께 LA순복음 중앙교회로 창립되었다. 1984년 다우니 시로 1986년 세리토스, 1988년 사이프러스로 이전을 거듭하던 중 1989년 성전을 구입하고 임직예배를 드리고 1991년 감사한인교회로 이름을 개명했다. 2001년 12월 16일 부에나팍에서 기공예배를 드렸고 2003년 5월 3일 성전 완공 헌당예배를 드렸다. 이후 성장을 거듭하며 선교와 교회 개척에 박차를 가했다. 2002년부터 아프가니스탄 고아원을 설립, 현재까지 해외 29곳, 국내 13곳 총 42 선교지를 섬기고 있다. 2024년 1800명의 성도가 출석하고 있다."

피택 장로 커뷰트 김, 정성훈 및 피택 안수집사 11명, 권사 25명, 명예권사 10명 등이 임직했다.

이어서 고창현 목사(토렌스 제일장로교회)가 권면했다.

"예배 수준을 능가하는 삶이란 없다 항상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그 본질을 잃지 않는 임직자가 되길 바란다. 처음에는 구원



감사한인교회(구봉주 목사)는 창립 41주년을 맞아 임직 감사예배를 드렸다. ©감사한인교회

의 감격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헌신하다가 조금씩 내가 헌신한 것에 대한 본전 생각이 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 받았음을 잊지 않는 자는 본전 생각 안 한다. 진짜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과 사랑의 관계"라고 했다.

박신웅 목사(얼바인온누리교회)는 '침표 · 마침표 · 느낌표의 축복'이 함께 하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임직자분들을 통해서 침표의 축복이 함께 하길 축원한다. 박동현 교

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가끔은 수업 시간 중에 가장 뒷 자리에 앉아서 함께 공부하는 학우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라. 힘든 자들이 없는지 살펴보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사역의 첫 걸음'이라고 하셨다. 감사한인교회 곳곳에 눈물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침표가 되어 줄 수 있는 축복이 함께 하길 바란다. 두번째 축복은 마침표의 축복이다. '내가 누구를 보낼꼬, 그 물음표를 마침표로 바꿀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란다. 세번째, 느낌표의 축복이

함께 하길 축원한다. 평생의 신앙의 여정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느낌표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길 바란다."

이어서 임직자 대표로 Corbert Kim 장로가 답사했다.

그는 15살 때 이 교회에 와서 지금 56살이 되었다며, 아버지의 장례식, 와이프와의 만남, 자녀의 출생 등이 인생의 대소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주디 한 기자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25~26)

김귀보 담임목사

예배시간 안내
 주일1부 예배 오전 9시
 주일2부 예배 오전 11시
 GT Youth 예배 오전 10시 45분
 금요회복집회(금)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6시
 Website: http://www.thegreattree.org/
 3114 Old Denton Rd, Carrollton, TX 75007
 T. 972-904-3509

큰나무 교회
THE GREAT TREE CHURCH

한인교회·미국교회 함께 담임 맡은 한인목사 화제

샌디에이고 씨월드침례교회와 손라이트처치 두 곳 섬겨

한인교회와 미국교회를 동시에 목회하는 한인 목사가 있어 화제다. 15일 미주 중앙일보에 따르면 샌디에이고의 씨월드침례교회에서 30년 가까이 담임으로 사역해 온 이호영 목사는 지난 1월부터 미국교회인 손라이트처치(Sonlight Church)도 겸하고 있다.

그동안 손라이트처치의 담임을 맡았던 헨리 피터슨 목사가 지난해 12월 초 84세를 일기로 별세하자 영여 설교가 가능한 이 목사가 두 교회의 성도들을 이끌며 예배를 드려오다 올해 초 정식으로 추대를 받았다. 주일 오전 10시에는 영어예배를 드린 후, 11시 30분에는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목사는 손라이트처치에 대해, 샌디에이고 미션베이 인근 4에이

커(약 4,900평) 부지에 1만2천 스퀘어피트(약 340평) 크기의 자체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지만 교인의 수가 점점 줄고 있고 남아 있는 교인들도 나이가 들면서 이번 기회에 이 목사에게 교회를 맡겨 세대와 인종을 아우르는 다문화 교회로 거듭나고자 한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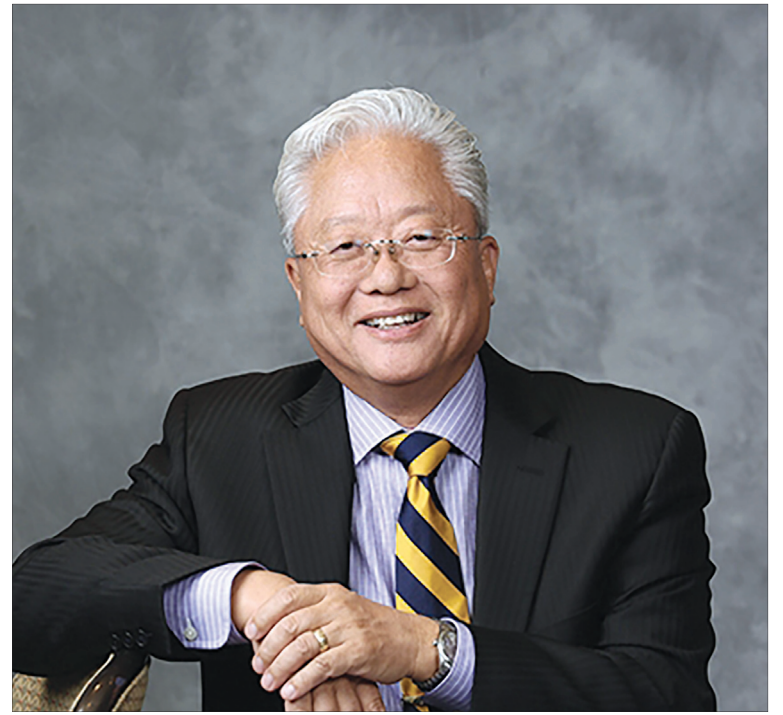
이 목사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민교회의 하나의 모델이 되면 한다. 이민의 역사가 깊어 갈수록 영여권 자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 간다. 하지만 그들이 성인이 되어 가정을 이룬 뒤 돌아오고 싶어 언어문제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씨월드침례교회 측은 손라이트처치와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민사회가 처해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담

은 다문화 교회로서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고 앞으로 목표를 밝혔다.

한편 씨월드침례교회는 1996년 10월 목사안수식을 마친 이호영 목사가 같은 해 11월 3일, 9명의 성도와 함께 ‘샌디에고연합침례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다. 이듬해 3월 2일 정식으로 설립예배를 드렸으며, 2006년 교회 이름을 지금의 씨월드침례교회로 바꿨다.

교회 측에 따르면 담임 이호영 목사는 20여 년간 미국 육군으로 군복무를 하면서 평신도 지도자로서 다년간 성경교사로 봉사하다가 군 지역 사회 속 한미가정의 갈등, 언어장벽으로 인한 부적절한 대우, 문화차이에서 오는 오해, 인종차별로 인한 소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들을 돕기 위해 교회에서 사역하다 만기 재대 전인 1992년 목회자로 사역하게 되었다고 한다. 김진영 기자



한인교회인 씨월드침례교회 담임으로서 올 초부터 미국교회인 손라이트처치도 함께 담임하게 된 이호영 목사. ©씨월드침례교회

센터메디컬 10주년 세시봉 콘서트 성황



3월 16일(토) 저녁 7시 아바바 극장에서 열린 세시봉 콘서트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센터메디컬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가입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3월 16일(토) 저녁 7시 아바바 극장에서 열린 세시봉 콘서트가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부터 기대감으로 가득 찬 가운데, 공연이 시작됐다. 이날 공연은 70 80으로 돌아가 향수와 추억에 잠기게 하는 시간이었다. 특히 윤희주, 조영남, 김세환의 마지막 미주 콘서트였기에 그의 미가 깊었다.

이번 콘서트는 남가주와 북가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시니어들만을 위해 전문적으로 케어하는 한인 메디컬그룹인 센터메디컬그룹의 창립 10주년으로 기획됐다.

10년 동안 시니어들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센터메디컬 그룹은 10주년을 내부에서 자축하는 대신에 가입한 환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 이번 콘서트의 무료 티켓

유튜브 다국어 자막 및 AI 활용 세미나

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는 YouTube 다국어 Subtitle 및 AI 도구를 이용한 목회와 선교의 활용방안에 대한 무료 Pre Workshop 강의를 캘리포니아(CA) 오렌지 카운티에서 3월 25일 월요일 저녁 6시에 현장 강의로 개최한다.

관심이 있는 평신도, 교회 지도자, 선교사, 신학생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 YouTube 및 AI에 대한 기본이해 △ YouTube 다국어 Subtitle 및 언어 번역 △ AI 도구를 활용한 목회와 선교적 활용방안 △ AI 도구를 활용한 YouTube 다국어 언어 번역 사례 △ 질문과 답변.

본 강의를 준비하는 제임스 구 교수는

“이번 강의는 YouTube와 AI 도구들을 활용하여 목회와 선교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사전 교육이다. 각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YouTube 생방송 및 영상들이 단순히 예배 영상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언어를 변환하여 세계 선교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준비하였다”고 강조했다.

강의 참석을 원하는 사람들은 사전에 ICMM 웹사이트(churchhomepage.org)에 있는 링크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강의 시간: 3/25(월) 오후 6시
장소: CALUMS 207호 강의실 (1126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강의 관련 문의: 949-667-0264, icmm@churchhomepage.org ICMM 기사 제공

을 배포했고, 1,000명이 넘는 센터메디컬 가입자들이 세시봉 콘서트를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센터메디컬 그룹의 창립 10주년 기념 혜택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4월에 시작되는 가입 환자 대상 무료 일일관광, 골프대회, 5월에는 유방암검사와 다른 콘서트와 공연

을 기획하고 있다. 센터메디컬그룹은 “10주년을 기념하여 풍성한 2024년을 보내기 위해 여러 혜택을 준비했다. 또한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메디컬이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더 많은 혜택들이 궁금하다면 센터메디컬그룹으로 문의하면 된다.

행사 및 혜택 문의 (714-904-1701)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웅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고봉준 목사 초청 특별 간증 집회

영화같은 이야기

아들 앞에 무릎 꿇고 용서받은 아버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 고봉준 목사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죄인은 없다”고.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연약함과 고통 중에도 인도하신 하나님! 그 간증 집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고봉준 목사

-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여의도순복음 총회) 남부지방회 소속 목사
- 아홉길사랑교회(김봉준 목사) 협동목사
- 사마리아 교정선교회 대표목사
- 법무부 교정위원
- 의정부교도소 종교위원
- 교도소 집회 25년간 1,500회 설교
- 경찰서 유치인 설교 5년간 500회 설교
- 미국 25회, 일본 22회, 브라질, 인도네시아 2회, 중국 2회,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5회.
-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등에 간증 집회와 부흥회 강사로 72회 사역
- 국내 외 많은 교회에서 간증집회와 부흥회로 사역 중



문의 : 기독교일보(213)434-1170

- 4월 10일(수) 오후 7:30 샘커뮤니티교회(담임 샘 신 목사) 125 S. Vermont Ave. LA, CA 90004
- 4월 14일(주일) 오전 11:00 주백성 교회 (담임 김성규 목사) 3400 W 6th St Suit 202 LA, CA90020
- 4월 14일(주일) 오후 7:00 웨스턴 교회 (담임 진건호 목사) 439 S. Western Ave. LA, CA 90020
- 4월 17일(수) 오후 7:00 남가주 은혜선교회 (담임 김창곤 목사) 300 Vallejo Dr. Glendale, CA 91206
- 4월 19일(금) 오후 7:00 We Bridge 교회 연합 집회
- 4월 21일(주일) 오전 11:00 가스펠 교회 (담임 김정호 목사) 11520 La Mirada Blvd, La Mirada, CA 90631
- 4월 21일(주일) 오후 3:00 더 섬기는 교회 (담임 김영일 목사) 605 S Palm St #H, La Habra, CA, 90631
- 4월 26일(금)~27일(토) 콜롬비아 리오아차 순복음교회 (김주영 선교사)
- 4월 28일(주일) 콜롬비아 보고타 순복음교회 (김주영 선교사)



시니어 전문 케어 메디컬 그룹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제 1회

센터메디컬그룹배



참가비 0!
참여자 모두에게
푸짐한 선물이 듬뿍!

3쿠션 시니어 당구대회

2024년 4월 10일(수) 오후 1시 NICE Q 당구장

(2877 W Lincoln Ave., Anaheim, CA 92801)

- 신청조건** 만 64세 이상의 시니어 (선착순 64명)
- 참가비** 무료
- 상품** 1등 - 65" TV / 2등 - 녹용홍삼세트 / 3, 4등 - 마사지건
그외에 다양하고 푸짐한 상품이 듬뿍!



1위 / TV



2위 / 녹용홍삼



3, 4위 / 마사지건



다양한 구디백 상품

이외에도 참가자 전원 푸짐한 선물 드립니다

문의 및 참가 신청 **714-904-1701**
(월~금 오전 8시반~오후 5시반)

센터메디컬그룹 오픈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2024년 4월 25일 (목) 오후 1시 샷건
California Country Club 1509 Workman Mill Rd, Whittier, CA 90601

참가비 \$150
* 참가비는 이웃을 섬기는 따뜻한 기금으로 사용되며,
참가자 성함으로 100% 전액 기부됩니다.

참가인원 120명 한정
(점심 도시락&디너 스테이크 식사 제공)

참가대상 만 64세 이상 시니어

참가문의 (714) 904-1701
(월-금 오전 8시반~오후 5시반)

- 상품**
- 행운의 홀인원 첫 주인공 **\$10,000** 현금 지급
 - 젬텍보석 다이아목걸이
 - 아시아나 LA-한국 왕복 항공권
 - 플라리스 피코웨이 레이저 \$1,200 상당
 - 올림픽골프 골프 상품권, 골프용품
 - 포크벨트 천연가족벨트
 - 동원F&B 산삼배양근
 - 조삼원 녹용홍삼
 - 크리스탈스파 이용권
 - 청운부페 \$50 식사권

내 인생을 쓰레기 통에 버렸는데 하나님이 꺼내셨다

감사한인교회(구봉주 목사)는 창립 41주년을 맞아 이상준 목사(현 1516 교회 담임)를 초청해 3/15(금)-17(주일)까지 부흥성회를 개최했다.

부흥성회 첫째 날인 15일(금) 오후 7시 30분에 이상준 목사는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눅 5:1~2)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시몬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과, 그 상황 가운데 시몬이 겪었던 갈등에 대해서 나눴다.

그는 시몬이 부름 받은 장면에서 앞서, 현장을 묘사하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었다고 말했다.

“예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셨다. 배를 사람들 앞에 대동하고 해변의 공명 현상을 이용해서 말씀을 가르쳤다. 당시에는 마이크 시스템이 없어서 들로 산으로 메아리쳤다. 집회를 마치고 나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다. 목수가 어부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신 것이다. 밝은 대낮에 물고기는 잡히지 않는다. 또, 갈릴리는 낮은 곳에 물고기가 굉장히 많다. 밤새 일을 마치고 낮에 다시 나간다면 쉬지도 못한다.”

야고보, 요한의 집안과 달랐던 시몬의 집안... 시몬은 생계형 가장이었을 것

“시몬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이였을까? 시몬의 마음과 우리마음이 상당히 비슷하다. 지금 시몬은 은혜도 체험했고 예수님의 기적도 체험하고 응답도 체험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의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 제가 두란노에서 책 5권을 썼다. 맨 처음에 쓰려 했던 책이 열 두 제자였다. 제자들의 인생을 연구해보면 재미 있는 것이 나온다. 시몬,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 야고보의 집안은 좋은 집안이었다. 야고보와 요한이 포링을 받는 장면에서 그들의 아버지는 일꾼들을 데리고 조업을 한다. 나중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안에 끌려 들어갈 때 요한은 아는 집안이어서 프리 패스로 들어간다. 갈릴리 어촌의 한 집안이 대제사장의 집안과 교류가 있었다. 따라서 야고보와 요한의 집안은 훌륭한 집안이었을 것이라 추정한다.”

“유대는 우리나라 문화와 비슷하다. 장자들은 가족을 책임지고 가업을 이어야 했다. 그런데 막내는 조금 자유로웠다.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이 가장 먼저 자유롭게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쫓아가다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었다. 야고보는 아버지의 가업을 잇는 것은 그의 가문의 큰 명예였다. 그런데 시몬은 본인이 오늘 물고기를 잡아 오지 않으면 입에 풀칠할 수 없는 생계형 가장이었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지만 그의 삶의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 ‘내 인생이 변할 게 뭐가 있는가. 내 인생은 아무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다.’ 해변에서 물고기 잡아서 먹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 수밖에 없었다. 그의 인생이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사는 삶이었다.”

영혼 없는 인생을 살며... 속마음 터놓지 못해

이어서 이 목사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시작한 토요 남성 모임을 통해 발견한, 남성 성도들



감사한인교회는 창립 41주년을 맞아 이상준 목사(1516 교회)를 초청해 3/15(금)-17(주일)까지 부흥성회를 개최했다. ©감사한인교회

이 겪는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다. “제가 교회 개척을 하면서 꼭 하고 싶었던 사역 중의 하나가, 남성분들을 위한 사역이었다. 토요 남성 모임을 시작했다. 12명 남성 성도들을 초청해서 6주 동안 만나서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자유 토론했다. 하고 싶은 얘기를 나누게 하고 성경적으로 방향을 잡아드렸다.”

“이 분들이 나뉘는 고통이 있다. 남자들이 밖에서 당하는 수모와 고통이 있어도 티를 내지 않는다. 남자들은 10이라는 고통을 경험해도 1 정도 밖에 못 느낀다. 10이라는 고통을 느껴도 그것이 고통인지 모르고 버티다가 한 순간에 쓰러진다. 내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 남성들이 세상의 풍파를 견뎌낸다. 그러다가 남자들이 많은 내상을 입고 고통을 당한다.”

“직장 생활 5, 10년차 남성들이 영혼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 그렇게 인생의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 순간부터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돈을 벌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인생의 의미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나만 믿고 의지하는 아내에게, 자녀들에게도 그 얘기를 터놓을 수가 없다.”

“토요 남성 모임 하셨던 분들과 3박 4일 동안 아웃리치를 했다. 성경에서 역사하니 남자들이 그렇게 운다. 술도 안 마시고 맨 정신에 성경을 받아서 눈물을 쏟았다.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나와서 잠만 잤던 분이 토요 모임을 나오면서 설교가 들리고 찬양이 들리기 시작해서 지금 60대이신데 처음으로 일주일 내내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셨다.”

“해변에 주저 앉아 있던 시몬을, 저 멀리서 도망가려는 시몬을 불러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게 하셨다.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런데 시몬이 이상한 반응을 보인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온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저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잘못 선택하셨습니다. 저를 선택하신 것을 후회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유형의 사람들

그러면서 이상준 목사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주님이 사람을 잘못 고른 것일까? 예루살렘에 가면 많이 배운 사람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잘난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왜 이 갈릴리 촌 구석에 오셔서, 생계형 가정을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시몬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 히브리, 고대에는 하비루라고 난민, 방랑하는 사람들이었다. 유리하는 이들을 불러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제일 연약하고 작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이상준 목사는 모세 역시 그가 스스로를 의지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음을 강조했다.

“모세가 왕궁에서 잘 나갈 때 부르시지 않았다. 그의 인생의 밑 바닥에서 그를 부르셨다. 40년 동안 모래 바막 속에서 양 염소만 보다가 언어적 표현 능력이 바닥이 되었을 때 그를 부르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주신 것이다. 생각해 보라, 담임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 옆에 부목사에게 말하면, 부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내 생각이 가득해서 하나님 음성이 안들리는 것

그는 자신의 능력을 모두 내려 놓은 “백지 상태”가 될 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백지를 들고 나가야 한다. 기도할 때 다 자기 정답이 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몰으면서도 내가 마음속으로 정답을 정해놓고 기도한다. 금식기도가 아니라 단식투쟁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가르치려 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혼내는 사람이 많다. 나는 문제가 없고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시간에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사람이 어떤 종이를 프린터에 출력할 때, 이미 한 면에 출력이 되어 있다. 이면지를 출력하겠다고 넣으면 이미 프린트 된 위에 다시 프린트가 된다. 그리고는 한 글자도 못 읽는다. 그러고서는 도대체 왜 응답을 안하시나. 내 생각이 가득해서 하나님 음성이 안들리는 것이다.”

“책 웰치 회장에겐 사람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었다. 그는 어설피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차라리 백지인 사람이 낫다고 했다.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은 못 고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다 내려 놓고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대로 그것을 최선으로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게 된다.”

그는 누가복음 5장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다른 시각으로 해석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공부한다면,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한다’고 배운다. 맞는 이야기이다.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한다. 그런데 실제 상황에 처해보면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다. 내 생각이 있고 베드로처럼 생계형 가정으로 내가 주님을 따라 가야 하는 것인데 내가 지금 돈을 벌지 않으면 안되니 순종하기 어렵다.”

내가 존재하는 거 자체가 싫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꺼내 쓰시겠다고 하셨다

이상준 목사는 첫 날 집회를 마무리하며 아버지의 지병으로 우울했던 어린 시절과 그의 삶을 반전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했다.

“세상에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싫었다. 수련회는 매번 갔지만 기도는 할 때 뿐이고 집에 돌아오면 상황은 똑같았다. 내 인생을 쓰레기 통에 버렸다. 하나님 저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쓰레기 통에 버렸는데 하나님이 리사이클 하겠다고 꺼내셨다.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수련회 때 강력한 체험을 하게 됐다. 그러면서 엡1:2절 말씀을 읽는데, 평강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거대한 해일이 되어서 저를 완전히 덮어버렸다. 3개월 만에 육을 하던 버릇이 끊어지고, 5개월 만에 온 몸이 다 나았다. 성령 충만해지니 내 안의 어둠이 다 사라졌다. 영이 치유되니, 혼과 육이 치유되었다.”

하나님이 나의 성경 과외 선생님이

“그러고 나서 성경이 하나님이 나의 과외 선생님이 된 것처럼 재미있게 다가왔다. 하나님이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야고보서 1:5) 이 말씀을 수학의 정석 앞에 써 놓았다. 수학 공부를 하는데 해설을 봐도 이해가 안됐다. 다시 페이지를 덮고, 야고보서 1:5-8절을 하나님께 읽어 드리고 ‘약속을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나서 해설을 다시 읽는데 이해가 됐다. 그때부터 수학이 재미있어 졌다.”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가?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리는 자기 자신에게 절망한 사람, 인생의 해변에 주저 앉아 있는 시몬 베드로 같은 사람이다.” 주디 한 기자



www.marhlaw.com
 "마동환 법률상식"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변호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실력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정성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책임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 활짝 열림

신뢰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상법 / 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동환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전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가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뱅크립시

뱅크립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불리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모든 상담 비대 화상 보장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 a 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원)마동환 변호사 그룹 대표
 (현)국제비즈니스 USA 이사장
 (전)남가주 교회협의회 고문 변호사
 (전)제미발행기협회 고문 변호사
 (전)중부상공회의소 이사장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2024년 대박



100% Made in USA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연방 ITC : 30% 이상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 (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Solar?

(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가?)

-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설치 가능
- ✓ 최고 성능의 패널 사용
- ✓ Zero Down Payment (PPA의 경우)
- ✓ 전기료 50~90% 절감
- ✓ EV Car 사용자 Outlet Free

Lic#854389



BTS Solar Design Inc. T. 213-500-8000



ADU 전문

리|모|델|링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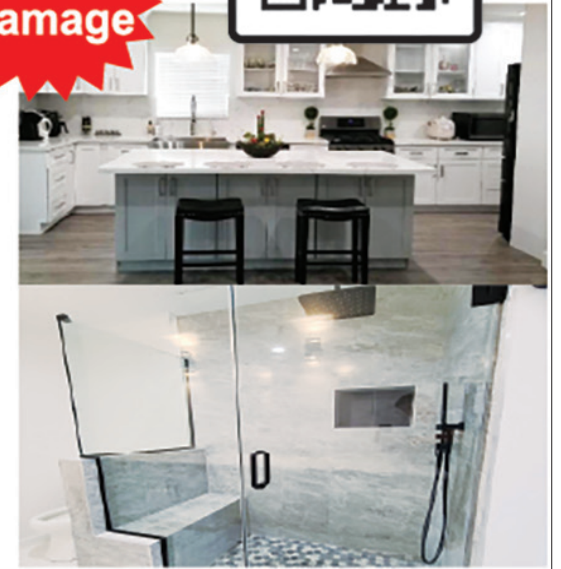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실내구조 변경 | 집수리 일체 | 디자인/설계/시공

-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 마루시공팀, Kitchen팀, Bathroom팀, Counter Top팀, 페인팅팀, Carpentry팀, 전기팀, Low Voltage음향팀, Plumbing팀, Window팀, Concrete팀, Stacco팀, Roofing팀, Solar시공팀, 철공게이트팀, 지진대비 보강공사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직영팀으로만 운영합니다.)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 23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 방문시 예약해 주세요!

Water
Damage



Abundance Design & Construction



213.310.1800

2621 W. Olympic Blvd. #205 Los Angeles, CA 90006



K-Urban Builders Inc.



949-781-9111

Show Room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창립 5주년 뉴욕로고스교회, 이번엔 사회적 책임 실현

개척교회임에도 역동적이고 다양한 사역으로 주목을 받아온 뉴욕로고스교회(임성식 목사)가 창립 5주년을 맞아 교회의 사회적 책임 감당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한다. 이는 뉴욕로고스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5대 중점사역의 일환으로 교회가 기독교 기업과 보다 깊은 협력관계를 형성해 취약계층의 취업을 돕는 한편, 교회들에게도 재정적인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뉴욕로고스교회는 그동안 이민사회 사회적 취약계층 전도 △법적, 제도적 미호보자 위한 사회보장 지원 △미자립 목회자 및 선교사 협력 및 지원 △재활가능 사회적 취약자 대상 일자리 창출 지원 △교회와 기업의 만남 통한 이민교회 자립 보조 및 지원 등을 5대 중점사역으로 정하고 이를 꾸준히 실천해 왔다.

“교회가 교인 창업지원 책임질 것…100명 사장 만드는 것이 목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도울 기업과의 우연한 만남은 임 목사가 지난해 여주를 방문하면서 이뤄졌다. 함께 했던 한국 일행들의 권유로 두피 마사지를 위해 들렀던 ‘큐사랑 염색방’에서 기독교적인 가치를 알아본 임 목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뉴욕로고스교회 성전. ©기독교일보

사는 곧바로 한운섭 회장과와의 만남을 추진했고 비즈니스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서로의 비전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후 미주에서의 총판을 맡는 것까지 일사천리로 대화가 진행됐다.

뉴욕로고스교회의 비즈니스 창업 지원은 교회 창립부터 오랫동안 꿈꾸고 구상해 왔던 사역이다. 2019년 설립 초기부터 교회의 존재와 사역의 목표가 분명한 교회로 출발했던 뉴욕로고스교회는 노인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앙적 및 사회적 배려로 하나님의 나라

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주된 사역의 목표다.

이를 위해 교회는 그동안 섬기고 나누는 사역에 많은 부분을 치중하게 됐고 이에 대한 재정 조달을 위해 교인들이 참여하는 사업을 병행하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를 지향했지만 교회가 성도들에게 창업을 지원하고 선교를 위한 기업으로 세워가는 부분은 생각처럼 쉽게 풀리지 않았다.

“교회가 사업장 독립 때 까지 초기 창업자본 및 시설투자 지원”

임성식 목사의 큐사랑 염색방 확장 방안 및 운영에 관한 구상은 매우 과격적이다. 해당 가게 현신자에게 최소 6개월부터 최대 1년까지 자립 및 독립운영을 원칙으로 가맹비와 시설투자 등의 초기자본을 지원해주고, 가게가 충분히 독립한 이후에 투자비는 환급받아 재투자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임 목사에 따르면 현재 1차 로고스 직영 가게는 6호점 까지 확정돼 있고 가게 운영에 동원될 성도들도 한창 선별하는 과정 중에 있다. 해당 사업장을 통해 성도 본인의 생업을 유지해나갈 뿐만 아니라 잉여재정으로 선교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주된 방향이다. 올해 목표는 미자립교회 10개, 신학생 5명, 선교지 10곳을 로고스 직영 가게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선교를 위한 연합체인 킨더마이저와도 연계해 미자립교회 연합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임 목사는 로고스 직영 가게 등을 통한 교회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 “일정의 신앙훈련과정을 통과한 교인들에게 소규모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재정 및 제반 업무의 지원은 한 사람 한사람을 비즈니스의 책임자로 세워 교회와 사회에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김대원 기자

투산영락교회 목회자 세미나 성료



제4회 투산영락교회 목회자 세미나가 12일부터 15일까지 은혜 가운데 열렸다. ©투산영락교회

‘이민교회와 디아스포라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는 프로젝트 제4회 투산영락교회 목회자 세미나’가 지난 12일(화)부터 15일(금)까지 3박 4일간 은혜 가운데 열렸다.

이번 목회자 세미나에는 지역적으로는 미국 동부와 서부에서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까지 참석하여, 총 24개 교회의 목회자 및 중남미 선교사와 사모가 참석했다. 교단을 막론하고 함께 모인 자리에서 교회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고민하고 나아가 할 지를 함께 나누었다.

강의 시간 뿐만 아니라 나눔의 시간을 통해 사역 경험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도 가졌다. 더 나아가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교회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서로 동역하면서 함께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이번 세미나에 세번째 참석하는 엄기돈 목사는 ‘해마다 이 세미나를 통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복음과 전도에 대한 열정을 되살리고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박상목 목사는 ‘작년에

세미나에 다녀간 후 교재를 20번 이상 다시 읽고 그대로 실천했다’며 4명의 성도가 있던 교회가 1년이 지난 지금은 50명이 넘는 성도가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LA 기쁨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희문 목사는 이 세미나를 ‘백만불짜리 세미나’로 칭하기도 했다.

투산영락교회 목회자 세미나는 한인 인구가 매우 적은 아리조나 투산 지역에서 지난 20여년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성장해올 수 있었던 놀라운 일을 함께 나누고 동역하기 위해 지난 2019년에 시작된 세미나이다. 처음 시작은 이민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는 프로젝트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그 지경을 넓혀서 이민교회와 디아스포라교회 그리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프로젝트를 꿈꾸며 나아가고 있다. 제 5회 목회자 세미나는 2025년 초에 전세계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열릴 예정이다.

투산영락교회 목회자 세미나 기사 제공

방주교회, 연령고본단 목회자 클래스



방주교회 연령고본단 만들기 목회자 클래스. ©방주교회.

플러튼 소재 방주교회(서민수 목사)가 지난 18일(월) 목회자들을 위한 ‘연령고본단 만들기’ 클래스를 개최했다. 이번 클래스에는 OC 지역 목회자 10명이 참여했다. 이날 서민수 목사는 연령고본단의 효과와 이 클래스가 목회자와 교인 및 전도 대상자들에게 효과적인 매개체가 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연령고본단 만들기 클래스는 서민수 목사의 FISH 전도법의 대표적인 클래스인 ‘공진단 만들기’ 클래스와 함께 영혼 구원을 위한 대표적인 전도 상품이다. 서민수 목사의 FISH 전도법은 비신자들과의 전도 접점을 만들기 힘든 요즘 시대에 특정 소수의 태신자들에게 건강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전도법을 소개하고 있다.

그 동안 방주교회에서만 사용되었던 이 전도법은 이제 방주교회의 문턱을 넘어 많

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함께 연대하는 전도 운동으로 퍼져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 일수록 전도를 위한 효과적 방법이 필요하다. 서민수 목사는 목회자 포함 최소 4인으로 구성된 전도팀이 꾸러진다면 이 클래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령고본단에서 ‘연령’은 ‘수명을 늘린다’라는 뜻이고, ‘고본’은 ‘근본을 견고하게 한다’는 뜻이다. 연령고본단은 인체의 원기를 복돋고, 전신의 순환을 돕는 약제 30여 가지를 쓴 처방이다. 중년 이상의 성인이 장기간 복용하는 보약으로 신장과 정기를 보하는 효능을 뛰어났다. 신경쇠약, 식욕부진, 성욕저하와 같은 증상에 좋으며 기억력이 낮아지며 시력이 약해질 때 중년의 장수보약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김민선 기자

100% UC대학 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4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NCA 사립학교

Now Enrolling IB PYP(K~5TH) • MYP(6TH~10TH) • DP(11TH~12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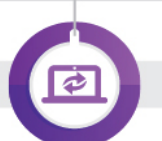
COVID-19 시대의 교육 ▶▶ 집과 학교, 어디든 병행수업이 가능한 NCA 온라인 시스템!



NCA만의 효율적인 Technology 제공



완전한 온라인 캠퍼스 환경 구축



커뮤니케이션 툴로 간편하게 정보 이동



검증된 LMS와 앱으로 높은 참여, 빠른 피드백



교사와 학생들 간의 디지털 콘텐츠 공유



데이터에 근거한 학생별 맞춤 교육

-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타 사립학교 대비)
-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213)487-5437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www.e-NCA.org



2024년 시리아 인구 중 절반 이상 기아 위기



월드비전을 통해 영양실조 치료식을 지원받고 있는 시리아 아동의 모습. ©월드비전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은 시리아 분쟁 13주기를 맞아, 인도적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시리아 주민 및 아동들을 위해 국제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월드비전에 따르면, 현재 시리아는 장기화된 갈등과 경제 침체, 코로나19, 폴레라, 그리고 지난해 발생한 대지진까지 각종 재난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주민과 아동들이 비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UN OCHA)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시리아의 인도적 지원 필요 인구는 1,670만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2011년 위기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현재 시리아 전체 인구의 90%가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특히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인구의 44%는 아동이다.

또한 시리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의 국내 실향민을 수용하고 있어, 제한된 자원으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기아와 영양실조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시리아 인구의 절반이 넘는 1,290만 명이 불충분한 식량 공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아동의 급성 및 만성 영양실조율은 놀라울 정도로 치솟고 있다. 긴급하게 식량 지원이 필요한 인구는 590만 명으로, 이 중 64%가 아동이다. 세계식량계획(WFP)은 시리아를 세계 10대 식량 부족 국가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시리아의 보건 위기도 심화되고 있다. 시리아 주요 의료 시설의 절반이 운영되지 않고, 의료 종사자가 크게 감소하면서 아동 사망률 증가로 이어지

고 있다. 가족과 아동들은 점점 더 보호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대지진 이후 소년소녀가장, 아동 노동 및 조혼이 증가했다. 예산 부족으로 여성과 여아를 위한 안전한 공간이 폐쇄되면서 이러한 위험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또한 시리아의 경기 침체로 아동들이 노동 또는 조혼에 직면해 학교를 중퇴하는 등 심각한 위기가 계속되고 있으며, 시리아 북서부 지역에서는 제한된 지원과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해 여성과 여아의 안전 취약성이 악화되고 있다.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요르단, 튀르키예와 같은 주변국도 전례 없는 수준의 인도적 필요를 직면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난민수용국은 주거/보호, 의료, 법적 시스템, 교육, 식수 및 위생과 같은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수백만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며, 지원에 대한 부담과 지역 내 갈등 및 경제 악화가 고조된 상황이다. 월드비전 시리아 대응 총 책임자인 엠마누엘 아이쉬는 "우리는 국제사회가 시리아 아동과 주민에게 긴급한 인도적 지원과 더불어 사회 회복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장기적인 분쟁, 자연 재난,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원 예산 감소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시리아를 심각한 곤경에 빠뜨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월드비전은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시리아 위기 대응을 위해 보건/영양, 보호,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지원, 교육, 생계, 식수/위생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아동 140만여 명을 포함한 약 240만 명에게 필요한 도움을 전했다. 강혜진 기자

쿠바, 지난해 622건 종교자유 탄압...2년전보다 2배 이상 ↑

2021년 7월 시위 이후 쿠바에서 종교 자유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622건의 종교 자유 침해 사례가 보고되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영국의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세계기독교연대'(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CSW)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쿠바는 2022년에 657건의 종교 자유 침해 사례가 발생했으며 2021년에 비해 상당한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에는 272건의 사례가 기록되었다.

CSW의 2024년 3월 보고서 '억압과 저항 - 강경 전술로의 회귀'는 쿠바 내에서 종교 지도자 및 신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억압적인 입법과 체계적인 인권 침해 사례를 강조했다. 이 보고서에는 개신교, 천주교를 비롯해 아프리카계 쿠바 단체 및 여호와의 증인 등 다양한 종교 단체가 포함되었다. 쿠바의 공산주의 정부는 2021년 7월 11일 시위 이후 종교 단체 및 지도자들을 겨냥하여 점점 더 억압적인 입법을 강화해왔다. 이로 인해 등록된 종교 단체와 미등록 종교 단체 모두가 침입적인 감시, 반복된 심문 및 종교 활동 억제 조치에 직면하고 있다. 보고서는 "정부는 특히 정치범 가족에게 정신적 또는 물질적 지원을 제공한 종교 지도자들과 개인을 표적으로 삼는 데 집중했다"며 "많은 지역에서 점점 더 심각한 인도적 필요에 대응하려고 한 종교 지도자들과 신자들은 괴롭힘

을 당하고, 벌금을 부과 받았으며, 자주 배급하려고 했던 구호품을 압수당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고서는 쿠바 정부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치범의 가족을 단체에서 추방하라는 압력을 가한 사례를 지목했다. 정치범들은 종교적 방문이나 종교 자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그들의 자녀들은 종교적 신념 때문에 학교에서 언어폭력을 당한 사례도 있다. 또한 미등록된 종교 단체의 지도자들은 괴롭힘과 위협 및 벌금에 직면했다. 보고서는 "정부에 의해 반체제 인사로 내몰린 사람들은 종교 예배 참석을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차단당했으며, 보통 단기입금의 구금을 통해 이루어졌다"며 "이민 물결은 줄어들 기미가 없으며, 쿠바를 떠난 많은 사람들은 구금 위협과 국가로 인한 자녀 양육권 상실을 이유로 꼽았다"고 밝혔다. 국제 종교 박해 감시 단체 '오픈도어스'(Open Doors)에 따르면, 쿠바에서는 정부가 기독교인에 대한 일차적인 박해자로, 쿠바 공산당은 기독교 신앙을 포함한 어떤 잠재적인 경쟁자도 위협으로 간주한다. 미국 국무부는 2024년 1월, 쿠바를 포함한 12개 국가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에 지정했다. 지정된 국가에는 북한, 중국, 미얀마 에리트레아, 이란 니카라과, 파키스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포함되고 있다. 강혜진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회차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213) 674-7966, (213)245-661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00(내세대에 오전 9:15) 새벽예배 (월요일인) 오전 6시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화-토) 오전 6:0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일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만2세를 책임지며, 이만2세를 돌보며, 선교영광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in 코너)
T. (213)386-2233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0:50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를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org

주일 1부 전통예배 오전 7:30 수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9:30
주일 2부 찬양예배 오전 9:00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 3부 열매예배 오전 11:00 토요일 한국교회 오전 9:30
주일 4부 오후 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중고등부 주일 11:00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466-1234 Email: omcoffe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영어) 오전 10: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 3부예배(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중보기도회 오후 2:00

김재연 담임목사

영생교회

1829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2-735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주일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Y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라티노 오후 5:0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기도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오전 10:55 주일예배 오후 7:30(온라인)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김 신 담임목사

주향교회

3412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4951/4952 / www.joohyang.org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교회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 새벽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주일예배 오후 7:30
종교동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대학청년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한현중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영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박부한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주일 오전 10:00 하트교회
4500 W. El Segundo Hawthorne, CA 90250
Tel. 310-706-7721

진현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국용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콜라세(Calling), 고교회(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대(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549-9191 / F. (818)549-9199 / choonghyun.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사우스 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유교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토) / 6:20(토)

이황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윤성현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김정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김경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침으로 오별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전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최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오렌지카운티 지역

방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O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리투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8: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nhome.org

이우호 담임목사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가든구구제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구제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여대학생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인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백정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C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교회 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지영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삼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림학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서서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30(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m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김한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아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박신웅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아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명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결함은교회 세계선교를 이루어가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박훈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6: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김종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여성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평일전교부부) (토/주일) 새벽 6:00

오렌지카운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주혜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안창훈 담임목사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LA 동부 지역

우영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9:40 금요영성집회 저녁 7:30(금)

LA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a,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고승희 담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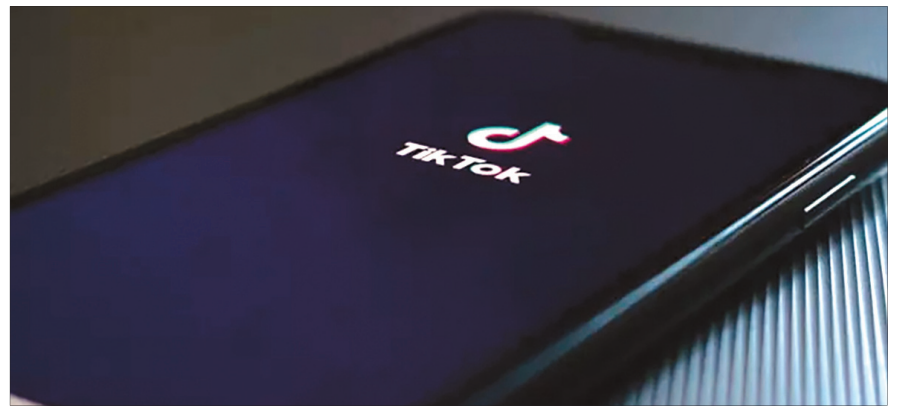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미국 하원, 中 틱톡 금지법안 통과... 안보 위기가 중론



©Kon Karampelas/ Unsplash

미국 하원이 중국 기반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틱톡(TikTok)의 중국 소유주가 자사 지분을 매각할 때까지 미국 내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13일 미국 하원은 352 대 65로 이 법안을 압도적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틱톡 및 후속 응용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바이트댄스 주식회사(ByteDance Ltd.) 또는 이 회사의 통제 하에 개발되거나 제공되는 기타 응용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등 외국 적대 세력이 통제하는 응용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틱톡을 소유한 바이트댄스가 중국 법률에 따라 정부가 요청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로 인해 미국 시민들에 대한 정보가 수집될 수 있다고 했다.

미국 하원이 중국 기반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틱톡(TikTok)의 중국 소유주가 자사 지분을 매각할 때까지 미국 내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13일 미국 하원은 352 대 65로 이 법안을 압도적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틱톡 및 후속 응용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바이트댄스 주식회사(ByteDance Ltd.) 또는 이 회사의 통제 하에 개발되거나 제공되는 기타 응용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등 외국 적대 세력이 통제하는 응용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틱톡을 소유한 바이트댄스가 중국 법률에 따라 정부가 요청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로 인해 미국 시민들에 대한 정보가 수집될 수 있다고 했다.

위싱턴주 공화당 하원의원인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는 성명에서 "우리는 틱톡에게 명확한 선택권을 주었다"며 "중국 공산당에 소속된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와 분리되어 미국에서 계속 운영할지, 아니면 중국 공산당과 결탁하여 그 결과에 직면할지, 선택은 틱톡에게 달려 있다"고 경고했다. 미주리주 공화당 상원의원 조쉬 할리는 과거에도 틱톡에 반대하는 법안을 적극 옹호해 온 인물이다. 그는 하원의 투표 결과를 지지하며 "상원이 이 법안을 즉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할리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지금은 틱톡에 대처하고 중국의 스파이 활동을 막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중국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 의회의 결정을 '괴롭힘'이라고 비난했다. NBC 뉴스에 따르면, 왕웬빈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뉴스 브리핑에서 "국가 안보를 핑계로 다른 나라의 우수한 기업들을 자의적으로 억압할 수 있다면, 여기에는 공정성이나 정의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미국 전 재무장관인 스티븐 므누신은 틱톡을 인수하려는 투자자 그룹을

조직하고 있다고 지난 14일에 발표했다. 그는 현재 미국의 사모펀드 회사 '리버티스트라티지캐피털(Liberty Strategic Capital)'을 이끌고 있다. 므누신은 최근 CNBC 토크쇼 '스쿼크 박스(Squawk Box)'에 출연해 "나는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고, 틱톡이 매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는 훌륭한 사업이며, 틱톡을 인수하기 위해 그룹을 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5월, 몬태나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스토어가 틱톡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앱을 완전히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 최초의 주가 되었다. 그렉 지안포르테 몬태나 주지사는 당시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이 틱톡을 통해 미국인을 감시하고, 개인정보를 침해하며,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다"며 "오늘 몬태나는 중국 공산당이 몬태나 주민들의 개인 데이터와 민감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주들 중 가장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고 선포했다. 지난해 3월, 틱톡 CEO인 쇼우 치우는 하원 에너지 및 상업 위원회(House Energy and Commerce Committee)에 자신의 사업이 중국 정부를 위해 일했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치우는 "틱톡은 미국과 싱가포르의 경영진이 주도하는 회사로, 로스앤젤레스, 실리콘밸리, 내슈빌, 뉴욕, 워싱턴 D.C., 더블린, 런던, 파리, 베를린, 두바이, 싱가포르, 자카르타, 서울 및 도쿄를 포함한 국제 사무실을 두고 있다"며 "본사는 로스앤젤레스와 싱가포르에 위치해 있다. 틱톡은 중국 본토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라고 서면 증언으로 주장했다. 또한 그는 "틱톡은 미국에 법인을 설립한 미국 회사이며, 미국 법의 적용을 받는다. 틱톡은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정부와 공유한 적도,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며 "단일 그러한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유진 기자

美 여성 선수들, "성전환자와 경쟁은 불공정" 소송 제기

생물학적 남성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성 경기 참여를 두고 미국 내 소송전이 벌어졌다. 전현직 여성 운동선수들이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성부 대회 출전을 허용한 전 미대학체육협회(NCA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미국 ABC방송에 따르면, 16명의 여성 운동선수는 NCAA가 2022년 미국대학선수권 수영대회에 트랜스젠더 선수 리아 토머스(Ria Thomas)의 여성부 대회 출전을 지난 14일 허용한 데 대해 19일 소송을 걸었다. 이들은 "NCAA의 결정이 여성 선수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교육 과정에서 성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 중 한 명인 케이틀린 힐러 전 캔터키대학교 수영 선수는 "NCAA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공정성과 선수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인데, 이 간단한 임무에 실패했다"며 "여성 선수들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낸 소장은 2022년 NCAA 전국수영선수권대회에 펜실베이니아대학 소속으로 출전했던 트랜스젠더 수영 선수 리아 토머스에 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원래 토머스는 2019년부터 호르몬 요법을 통해 남성에서 여성으로 비수술 성 전환을 했다. 생식기를 제거하지 않은 채 남성 호르몬 억제 치료만을 받은 것이다. NCAA는 토머스가 1년 이상 치료를 받았

다며, 그가 여성부 대회에 출전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는 그해 대회에서 여자 자유형 500야드(457.2m) 부문 우승을 차지했다. 그가 남자 선수로 출전했을 때 미국 랭킹은 400~500위였다. 이와 관련, 토머스의 동료 플라 스캔런은 지난해 미국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남자 생식기가 그대로 있는 토머스 앞에서 일주일 18번씩 강제로 옷을 벗어야 했다"며 "이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가족 화장실을 사용하는 여학생들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여자 선수들이 불만을 제기했지만, 학교 측은 타협할 수 없다는 답변만 했고, 우리가 남자 앞에서 옷 벗는 것이 익숙해지도록 상담을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또 "토머스는 남자였을 때 전국 500위권 선수였으나, 여자부에선 챔피언이 됐다. 여성들이 시상대에 설 자리를 잃었다"고 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전현직 선수들은 올해 열리는 대회에 트랜스젠더 선수 출전 규정 적용을 막아 달라고 요구했다. 또 앞서 트랜스젠더 선수가 출전했던 대회 결과를 바탕으로 한 모든 기록과 타이틀도 무효로 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의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한 선수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라며 "모든 사람은 출발선에서 평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혜진 기자

美 복음주의 개신교인 54% “교회, 낙태 문제에 공개적 참여해야”

공공정책 문제에 있어서 교회와 지도자들이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오랜 논쟁이 지속된 가운데 대다수 복음주의자들은 교회와 지도자들이 깊이 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문제를 언급했다.

이들이 언급한 문제는 낙태와 공개적인 신앙 표현 허용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전했다.

인피티니 컨셉츠가 새로 발표한 ‘복음주의 공공 경계장’(Evangelicals in The Public Arena)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두 가지 문제 외 다른 이슈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종교적인 복음주의자들이 문제를 많이 볼수록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의 대중 참여를 더 많이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연구 결과는 나타났다.

2023년 말과 2024년 초 1천39명의 복음주의 개신교인을 대상으로 수집한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복음주의 개신교인의 54%는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낙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51%는 공개적인 신앙 표현에서 허용되는 것이 무엇인지 논의할 때 참여를 지지했다. 예를 들어 ‘My Faith Votes’ CEO인 제인슨 에이츠는 2020년 기독교인의 투표를 장려하면서 “투표는 기독교인이 정치 과정에 ‘소금과 빛’을 추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제시했다.

그는 CP에 “우리는 문화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도록 부름 받았다. 나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특히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라는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을 자주 이야기하며,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묘사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연구에서 11가지 공공정책 문제가 제시되자 복음주의자들은 교회와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공개적으로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응답자의 22%는 11개 문제 중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교회와 지도자의 대중 참여를 보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복음주의자 가운데 78%는 적어도 하나의 문제에 대한 대중의 참여를 지지했

다.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복음주의자일수록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연구에서 테스트한 11가지 문제 모두에 깊이 관여했다.

연구에서 제시된 11가지 문제 중 복음주의자들은 공개적인 종교 표현에서 허용되는 문제가 대부분 종교적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선거의 진실성과 공정성, 총기법, 수정헌법 제2조,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 형사 사법, 선고 개혁은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이 정치적 문제로 간주했다. 대다수 복음주의자들은 인종 정의, 학교 선택, 트랜스젠더주의를 사회적 문제로 간주한다. 그러나 낙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반유대주의에 관해서도 복음주의자들은 비슷하게 분열되어 43%는 이를 사회 문제라고 부르고 38%는 종교 문제라고 생각했다. 복음주의자의 49%는 기부자의 개인 정보 보호를 사회적 문제로 여기고, 37%는 정치적 문제로 생각했다.

이 연구는 또한 복음주의 개신교인 대다수(63%)가 자신을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라고 답한 반면, 24%는 온건파, 12%는 정치적으로 진보적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인, 고소득자, 55세 이상의 복음주의자들은 자신을 보수적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음주의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든 상관없이, 연구 결과 그들은 모두 비슷한 빈도로 기도하고, 교회에 참석하고, 소그룹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자유주의 복음주의자들은 또한 낙태가 죄라고 믿고(62%), 결혼 전 성관계(70%), 동성애 행위나 성관계(70%), 음란물(80%)이 죄라고 믿었다. 연구원들은 “전반적으로 보수 복음주의자들은 자유주의 복음주의자들이 매우 보수적인 이들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관점에서 매우 진보적인 이들을 본다. 보수주의자들은 진보주의자들을 묘사할 때 부도덕, 급진, 악, 적과 같은 용어를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지적했다.

이미경 기자

아이티 갇힌 美 선교사들, 기도와 도움 구해



아이티의 질 돌란 선교사와 현지 아이들의 모습. ©러브 어 네이버 제공

아이티에서 고조되는 폭력 사태로 아리엘 헨리 총리가 11일(이하 현지시간) 사임을 발표한 가운데 미국 선교사와 입양 자녀들이 대피 중 기도와 도움을 구하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선교사 라이언 돌란(Ryan Dolan)과 질 돌란(Jill Dolan)은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파송교회 카마노채플(Camano Chapel)과 협력해 2013년 10월부터 아이티에서 아이들과 함께 ‘러브 어 네이버’(Love A Neighbor) 사역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 12일 이들의 친척은 ‘러브 어 네이버’ 페이스북에 성명을 내고 “질 돌란 부부와 입양 자녀 4명이 지난주 출국을 시도하다 갇혔다”며 “나의 조카 라이언과 그의 아내 질은 입양 10대 자녀 4명을 위해 긴급 기도를 요청했다. 그들은 무장 갇힌 아이티 수도의 공황을 겪어왔을 때,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북쪽에서 열린 친필 사라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가던 중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후로 아이티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총리를 축출

하기 위한 대규모 갇힌의 소요 사태가 도시 전역, 특히 그들이 숨어 있는 공항 근처에서 계속되면서, 그들은 총소리가 들리는 작은 호텔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10대들은 모두 백인이어서 아이티에서 눈에 띌 수 밖에 없고, 현재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수도를 오가는 모든 도로도 폐쇄돼, 아이티 반도 서부에 있는 사역지라도 돌아갈 수 없다”고 했다.

가족은 라이언 돌란과 그의 아들이 아이티에서 소요 사태가 터졌을 때 이미 미국에 있었지만, “물론 그들도 드라마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했다.

2023년 7월, 미 국무부는 미국인들에게 카리브해 국가로 여행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아이티에 대한 ‘4단계 여행 주의보’를 다시 발령하고, 납치, 범죄, 시민 불안, 열악한 의료 인프라 때문에 이 지역 여행을 금지했다. 7월 27일 국무부는 모든 미국 시민과 비긴급 정부 직원에게 가능한 한 빨리 떠날 것을 요청하고, 미국 공무원과 그 가족에게 출국을 명했다.

이미경 기자

주일에 오전 11:0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예배 오후 7:30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주일에 오전 8:00 금요일아기도(마지막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토)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지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a@hnsa.org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광일(월-금) 06: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침례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최요기도모임 오전 10: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토요일 오전 7:00

김상현 담임목사

한인필그림교회

2518W. Grand Ave. Alhambra, CA 91801
T. (626)570-1610 (교회), (714)853-4030(담임목사)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 2부 오후 12:30

EM 오후 12:30

사랑부 오전 11:00

JCCC Academy 오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아고 내 길에 빛이 나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대학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안정섭 담임목사

예수동행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ilovejcc.com

1부 예배 오전 9:30

금요일성경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EM예배 (1부) 오전 9:00

EM예배 (2부) 오전 11:00

한여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새벽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크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수요예배 주일 오전 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저녁 7:30

이민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3225 S Rainbow Blvd #200, Las Vegas, NV 89146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침례회 오후 7:00

토요새벽예배 오전 7:00

E.lvk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화-토) 새벽 5:30

정공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6827 W Tropicana Ave #130, Las Vegas, NV 89103
T. (702) 742-3324 / thinkhappy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6: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이병걸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제일침례교회

2625 Westwind Rd, Las Vegas, NV 89146
T. (702) 331-5026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예배 7:00 PM

새벽기도 회-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좋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woorjoe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침례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유경태 담임목사

유경태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15 AM

주일 4부예배 오전 11:15 AM

수요기도회 7:30 PM

유영욱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8:00 AM

주일 2부 9:30 AM

주일 3부 11:15 AM

수요기도회 7:30 PM

영아유아 유치부 11:15 AM

중고등부 9:30 AM/11:15 AM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새벽예배 월-토 5:30 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11:00

주일 3부 오전 1:30

주일 4부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 오전 6:00

193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9, (818)833-5887

OC채플 주일 오전 9:30 / 토 오전 8:00(200M)

6801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1

최혁 담임목사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교류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크스필드 ANC은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 10:15 (한국어, 스페인어)

주일예배 3부 오전 12:15 (한국어, 교류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Quen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삼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6985 W Sahara Ave, Las Vegas, NV 89117
T. (702) 378-9828

주일낮예배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주일저녁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조용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jho@hot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00(영어 동시통역)

화요중보기도회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박은호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은혜와 사랑의 교회

2580 Montessouri St. #107, Las Vegas, NV 89117
T. (702) 539-6348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E-Mail: inexc@inexcenter@gmail.com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 * 헤어컷 배워 신고하실 분(무료)클래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데저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수습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말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비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신비의 침술, 놀라운 속담

Youtube에서 **김용석** 원장으로 검색하시면
많은 치료사례를 보실수 있습니다.

김용석 한의원 구당 김남수 선생님의 무극 보양탕을 체험해 보십시오.
LA 323.733.8814 OC 714.522.8818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junimedia@gmail.com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가득...
이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찜갈비, 찜갈비 정식, 찜갈비 김밥, 솔빵 새우만두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NATURE'S TREASURE
Innervis NUTRITION

건강을 선물하세요

부모님 선물로 딱이네~

- 기억력 개선
- 피로 회복
- 면역력 강화
- 항산화 작용
- 혈액순환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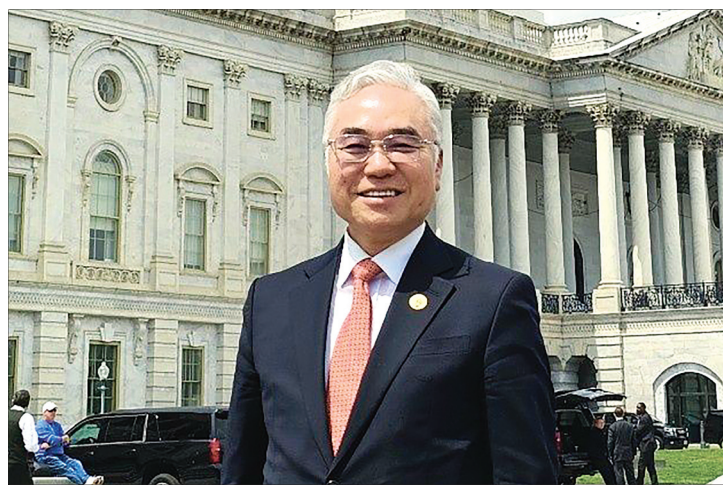
5 **비타민 D3 5,000 IU**
120 캡슐을 캡슐 \$8.80
D3 5000 IU 선사인 비타민 D3 5000 IU는 햇빛을 보지 않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비타민D 결핍을 보충해 줍니다.

6 **비타민 C500**
180 캡슐을 캡슐 \$11.99
당신의 건강과 부티를 위한 필수 영양소 필수영양소 비타민C와 갈슘, 그리고 노화 방지 피부 개선 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을 가진 로즈힙까지 함유된 제품입니다.

9 **면역력**
120 타블렛 \$11.99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로즈힙을 사용하여 제조된 강력한 면역력 개선 제품입니다. 신체 면역체계의 다양한 세포 기능을 지원해 줌으로써 면역력을 기쁘게 만들어 줍니다.

전화구매
213-434-1170

세계한인재단 박상원 이사장, “이민자의 기록 모으는 일 해야”



박상원 세계한인재단 이사장(상임대표 총회장)

“이민자들의 기록을 모아 한민족의 전통과 역사를 이어가야”

박상원 세계한인재단 이사장(상임대표 총회장)은 2012년 10월 16일 대한민국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33개국 한인지도자들이 모여 설립한 세계한인재단 창립식을 개최했다. 미주한인재단 전국 총회장으로 매년 10월 5일 대한민국 법정기념일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 미주방문단을 결성해 참석했고 한인디아스포라 지구촌 한인지도자들을 설득해 임의단체로 출발했다.

박상원 이사장은 “해외에 나가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성공을 이뤄낸 이민자들이 많다”면서, “이들의 기록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자료가 소실되고 기억이 희미해지기 전에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책으로도 집필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라밖에 살고 있는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는 인천을 출발한 한인으로 각 개인의 뿌리를 찾아 족보를 유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라면서, “인천에서 연구와 발굴의 노력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보기에 이를 위해 성공한 이민자들이 앞장서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박상원 회장은 최근 한국을 방문해 ‘제2회 대한민국 미주한인의 날 기념대회’를 조선히에서 개최했다. 제1회 기념대회는 2023년 1월 27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미주한인 이민 120주년 및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으로 개최한 바 있다. 박 회장은 “지난 1월24일 서울 소공

동 소재 웨스틴 조선히호텔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제2회 대한민국 미주한인의 날 기념대회를 개최했다. 500여 명이 연회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했고 국내에 미주한인의 날을 알리고 싶어 이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미주한인의 날(Korean American Day)은 캘리포니아주 의회 상하원에서 2004년 1월 12일 통과되어 선포되었고 미국 연방의회는 2005년 12월 13일 하원에서, 16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미주한인의 날’ 제정결의안을 통과시켜 법제화했다.

한인들이 1902년 12월 22일 인천 제물포항을 떠나 미주로 이민의 첫 발을 내디딘 1903년 1월13일을 미주한인이민 출발이자 생일로 매년 1월 13일을 미 국가 기념일로 정한 것이었다.

이 법안을 추진한 것은 2003년 미주한인 이민 100주년을 맞아 발족한 ‘미주한인이민 100주년기념사업회’가 시작해 기능과 역할을 승계한 미주한인재단이었다. 당시 박상원 회장은 사무총장으로 이 일을 맡아 추진하면서, 캘리포니아주의회 상하원에서 제정 선포했고 2년후 미 연방 상하원에서 ‘미주한인의 날’을 제정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박상원 회장은 “대사건과 일지로 본 한미관계 200년사(차종환, 박상원 편저, 2022년 월드코리아신문사 발행)”를 소개하며 “미국 연방의회가 미주한인의 날을 제

정한 것은 재미한인들의 개척적인 삶과 미국사회에 기여한 헌신적인 활동과 업적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미주한인들은 미국사회 주역의 하나로 당당하게 인정받았고, 이와 함께 그 위상도 크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 일의 계기는 미주한인이민 100주년기념사업회가 2003년 5월 9일 워싱턴DC 힐튼호텔에서 개최한 전국대회에서 매년 1월 13일을 미주한인의 날로 정하기를 결의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6월 9일 장인환·전명운 의사 흉상제막식 행사를 맞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전국총회를 치르면서 미주한인이민 100주년기념사업회는 100주년 사업의 뜻을 발전 계승할 수 있는 단체로 미주한인재단을 설립했다. 이와 함께 제1회 미주한인의 날을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2004년 1월 12일 캘리포니아주의회도 새크라멘토 의회의사당에서 ‘미주한인의 날’ 제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주한인재단은 2004년 1월 13일 LA시의회에서 미주한인의 날 선포식을 거행했다. 이와 함께 LA 윌셔그랜드호텔에서 제1회 미주한인의 날 행사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이어 2005년 1월 13일에는 LA윌셔어그랜드호텔에서 제2회 행사를 열었다.

그는 “미주한인의 날은 미주한인재단의 중심이 돼 제정을 이끌어냈지만, 이 날을 기념하고 그 뜻을 살리는 것은 미주한인사회의 몫”이라면서, “미주지역에 있는 200여 한인회가 지역별로 기념식 행사를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에 이민한 우리 동포들 가운데 현지에서 입지전을 쓴 인물들이 많습니다. 타계하신 분들도 있지만, 지금 살아계신 분도 많습니다. 이분들의 기록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모국의 발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합니다.” 라면서, “지구촌 곳곳에 살고 계신 한인들의 뿌리를 찾아 한민족의 전통과 역사를 이어가고 한민족이 세계 인류 역사의 주역으로 나서야하며 대한민국이 세계역사를 주도하는 중심 국가로 발전해야 합니다”고 말했다. 김석민 기자

호주인 42% “가족·친구가 부활절 예배 초대하면 갈 것”



©Bruno van der Kraan/ Unsplash.com

호주인들의 상당수가 부활절을 맞아 친구와 가족들의 교회 예배 초대에 응할 마음이 있다고 답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는 최근 “호주 여론조사사업체인 NCLS 리서치(NCLS Research)가 공개한 2022년 호주 지역사회연구(2022 ACS) 자료에 의하면, 응답자의 약 42%가 ‘부활절 예배 초대’를 받을 경우 참석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에 따르면, 호주인의 17%가 부활절 예배에 참석한다고 답했다.

NCLS 연구 책임자인 루스 파월 박사는 “사람들은 부활절과 같은 중요한 시기 교회에 참석하는 것을 더 잘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들

을 초대하라”고 권면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 대학 학위가 있는 사람, 비영어권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은 부활절 예배 초대에 더 잘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은 주요 통계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월 박사는 “흥미롭게도 모든 연령대가 부활절 예배 초대에 ‘예’라고 답할 확률이 동일했다”고 했다.

또 평균 호주인과 기독교 메시지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는 기독교에 어느 정도 익숙하다고 말했다. 20%가 조금 넘는 응답자가 “기독교 가르침과 가치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고, 40%는 “대부분 진수하다”고 했다. 그러나

거의 20%는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거의 또는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예수님에 관한 질문에서 부활절 메시지의 중요성이 가장 강조됐다.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예수가 실제 인물이라고 믿었다”고 답했으나, 25%는 “확신이 없다”고, 20% 이상이 “예수가 신화나 허구의 인물이라고 믿었다”고 했다.

CT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친구와 가족을 교회에 초대하는 일에 대해 긴장할 수 있지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자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대해 기독교와 그 중심에 있는 역사적 인물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강준민 컬럼

당신이 풀잎 하나를 자르면 우주가 흔들린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당신이 풀잎 하나를 자르면 우주가 흔들린다.”는 중국 속담이 있습니다.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풀잎 하나를 자르는 것을 작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풀잎 하나를 자를 때 우주가 흔들립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작은 것의 힘을 많이 경험합니다. 작은 것이 축적될 때 놀라운 일이 전개됩니다. 작은 씨앗 속에 엄청난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나비의 날갯짓이 폭풍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은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것이 쌓여서 큰 것을 이룹니다. 작은 성공이 쌓여서 큰 성공을 이룹니다. 착한 일 하나가 나중에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창조주 법칙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양성을 좋아하십니다. 확실성을 싫어하십니다. 겨울에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도 비슷해 보이지만 모두 다릅니다. 세계 인구를 75억에서 80억으로 봅니다. 정말 많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릅니다. 다름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름은 다른 것이며, 다름 자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독특한 개성과 기질과 재능과 성향과 잠재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각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독특함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자신의 진면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보고 말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잠재력을 개발시켜 주고, 그 잠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은 은혜입니다. 은총의 사건입니다.

제가 경험한 독특한 은혜는 어느 순간에 생각지 않은 일들이 순식간에 전개되는 것입니다. 생각지 않은 일들이 아름답게 조화

를 이루며 전개되는 것입니다. 생각지 못했던 사람이 찾아오고, 생각지 못했던 책이 만나게 되고, 생각지 못했던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생각지 못했던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연이라고 말하는 일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어떤 순간에 놀라운 일들이 순식간에 전개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원리를 거듭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작은 것, 사소한 것, 하찮은 것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미소, 작은 선행, 작은 배려, 작은 섬김, 작은 봉사, 작은 결단, 작은 시도, 작은 아이디어, 그리고 작은 조언이 우리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 삶을 바꾸어 놓는 사건들을 점으로 연결시키면 우리 인생의 스토리가 됩니다.

며칠 전, 두 마리 새가 나누는 대화 속에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겨울의 빈약한 나뭇가지 위에 앉아 있는 두 마리 새가 나누는 대화입니다.

“눈송이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 박새가 산비둘기에게 물었다.

“눈송이에 무게 따위는 없어.” 산비둘기가 답했다.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해줘야겠군.” 박새가 말했다.

“그때 나는 전나무 가지 위에 앉아 있었어. 나무의 몸통 가까운 곳에 말이야. 그때 눈이 내리기 시작했지. 그때 나는 달리 할 일이 없어서 잔가지와 내가 앉은 가지의 접점수위에 쌓이는 눈송이를 썼어. 정확히 3,741,952번째까지 썼지. 그리고 3,741,953번째 눈송이가 가지 위에 떨어졌을 때 네가 ‘무게 따위는 없다’고 말한 눈송이 때문에 나뭇가지가 부러졌어.” 그렇게 말하고 박새는 날아갔다.

산비둘기는 노아 시대부터 그런 일에 정통했기에 그 이야기를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마침내 혼자 중얼거렸다. “어쩌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단 한 사람의 목소리가 부족한 것인지도 몰라.” (조셉 자보르스키, 『싱크로니시티』, 에이지, 재인용)

작은 눈송이가 조용히 쌓일 때 마침내 나뭇가지가 부러졌습니다. 작은 눈송이 하나가 일으킨 놀라운 변화처럼 한 사람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존귀합니다. 교회에서 세우는 모든 일꾼이 존귀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습니다.

윤임상 교수의 교회음악 이야기

십자가로 가까이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
음악학과장

지난 2021년 8월 경에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던 뉴스 중 하나는 아프가니스탄을 붕괴시키고 정권을 장악한 탈레반 세력들에 대한 보도였습니다. 이들의 무자비한 행동들로 인해 세계 사람들에게 큰 지탄을 받으며 아픔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당시 아프가니스탄의 최연소 여성 시장 자리파 가파리(Zarifa Ghafari 1994 -)와 최초의 여성 교육부 장관 랑기나 하미디(Rangina Hamidi, 1978 -)라는 두 여성의 리더십이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아프간 여성 인권의 상징이라고 일컫는 약관 26살의 자리파는 마이단사르 지방의 시장에 임명되면서 아프간 최초의 시장이 되었습니다. 당시 탈레반이 아프카니스탄 수도 카불을 점령한 날 그녀는 “나는 이 곳 카불에

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외치며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또 한 명의 여성, 랑기나 교육부 장관은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관료로 평가되고 있으며 당일 아침에도 평상적으로 사무실에 출근해서 동요하는 직원들을 달래고 가장 마지막으로 퇴근했다고 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날, 그들의 대통령 이었던 아슈라프 가니(Mohammad Ashraf Ghani Ahmadzai, 1949 -)는 돈으로 가득 채운 4대의 차와 부인, 참모진들을 이끌고 급히 수도 카불을 떠나 우즈베키스탄으로 도피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메스컴을 통해 전 세계에 대서 특필되며 이슈라프 대통령이 큰 지탄을 받고 있는 때에 이 두 여성들의 리더십이 큰 대조로 비추어졌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세계 인류의 구원을 위해 목숨을 버린 대 반전 사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그것이 모든 예배, 찬양, 그리고 사역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에이든 토저(Aiden Wilson Tozer 1897-1963) 목사님은 그의 책 <이것이 예배다>에서 “그러므로 나는 십자가 속죄의 보혈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에서는 단 한시간도 머물고 싶지 않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한편, 마틴 로이드 존스(D. Martyn Lloyd-

Jones 1899-1981) 목사님은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 상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파하는 것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며, 기독교 메시지의 진수입니다. 라고 서술합니다. 20세기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이 두 설교가의 공통점은 “십자가.” 그것만이 기독교가 전해야 할 전부라고 이야기 합니다.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시로 표현해서 찬송하는 대표적인 찬송 가운데 “십자가로 가까이 (Jesus Keep Me Near the Cross)”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19세기 찬송작가 패니 크로스비(Fanny Crosby 1820-1915)가 1869년에 쓴 것으로 그녀가 출생 직후 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능력의 생생한 장면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 능력으로 하나님께 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만드는 이 능력의 십자가를 묘사한 것 처럼 말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헬라 사상과 유대 사상에 선과 악, 영과 영의 대립 그리고 분리 사상이 너무 팽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간의 분열되고 부조화 된 사상을 만들게 된 모습을 열거하며 저자인 바울은 이 같은 현상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만이 해결 될 수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크로스비 여사의 십자가 정신을 담은 찬송을 소재로 조성은 작곡가가 “십자가”라는 안팎을 썼습니다. 이 곡의 내면을 보면 전 반부 고통과 수난의 길, 아무도 원하지 않는 길을 아무 말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단조를 사용하여 특유의 어둡고 호소력이 있는 모습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리듬을 통해 무거운 발걸음을 걷는 듯 연속해서 표현합니다.

그런 가운데 갑자기 십자가 사랑의 뜨거운 감격을 장조로 변화시켜 짧게 표현하고는 간주에 멜로디를 통해 그 깊은 의미를 묵상하게 합니다. 이어 다시 고난의 길을 반복하여 단조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짧은 간주에 이어 승리, 영광의 십자가를 장조로 전환하여 환희를 드러내며 역설의 십자가를 표현하며 종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면 고통의 십자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예수님을 원한다면 치욕의 십자가 그 맛도 보아야 합니다. 올해 사순절 기간을 마무리해 가며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가슴에 선명하게 새기며 기독교가 전해야 할 것은 그 십자가가 시작이요 끝이라는 사실을 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초긴급!!!

“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

청원서 서명운동

11월 선거에 주민투표 발의안 상정을 위한 공식 법적 청원서 서명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California의 악법들로부터

우리 자녀를 보호 하고

부모의 권리를 되찾기

주민 발의안이 통과 되면?

- 안전:** 공립/사립학교와 대학에서 화장실/사위실/라커룸을 **출생성별**로 사용하게 함
- 공평:** 7학년부터 **여학생 스포츠**에 **트랜스젠더 남성** 참가 불허
- 학부보 권리 보호:** 학교에서 학생을 트랜스젠더로 만드는 ‘젠더 명칭’, ‘성별 전환’ 시도 전에 반드시 **학부모에게 알릴 것을 의무화**
- 타고난 성별 보호:** 학교에서 **학부모 허락없이** 학생에게 **젠더 관련** 건강 및 정신 검진 혹은 **시술금지**
- 납세자 세금 보호:** 18세 미만 학생들의 트랜스젠더 의료서비스에 납세자들의 세비에서 나오는 자금 사용 금지

몇 개의 서명이 필요할까요?

- 11월 주민발의안에 상정되기 위해 필요한 **유효 서명 숫자: 550,000개**
- 무효화 될 서명들을 고려하여, **총 700,000개의 캘리포니아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 한인 커뮤니티 서명 숫자 목표: 70,000개 이상**의 싸인
- 한인 서명 마감: **2024년 4월 13일**
- 서명용지 및 설명서 보급장소
OC: 은혜한인교회, 갈보리선교교회, 사우스베이: 토렌스 조은교회
LA: 미주성서화 운동본부, LA 동부: 선한목자교회(Chino hills)

서명에 관한 안내나 서명용지를 받기 원하시면 **서명운동본부 (310-995-3936, 323-578-7933)**나 **TVNEXT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청원서명운동본부

고문: 송정명, 김영길, 한기형, 최학량, 최홍주, 민종기, 김인식 (이상 목사)

대표대회장: 한기홍

공동대회장: 강준민, 고승희, 고창현, 고태형, 고현중, 구봉주, 국윤권, 권혁민, 김경진, 김기동, 김기섭, 김우준, 김중규, 김준식, 김지훈, 김태형, 김한요, 김호용, 남강식, 남성수, 노창수, 민경엽, 박규성, 박성규, 박성근, 박용덕, 박은성, 박한성, 방상용, 백정우, 손창민, 송병주, 신동철, 신승훈, 신원규, 안 환, 오명찬, 우영화, 윤대혁, 이 서, 이영선, 이정현, 이종우, 임성진, 주혁로, 지용덕, 진유철, 최성광, 최 혁, 최형규

각지역 대표: 최영봉, 박재만, 이필성, 오기현, 박선호, 김우준, 전지승, 류수열, 김형길

지도위원: 남가주지역 모든 담임목사

자문위원: 김태오, 세라 김 (TVNEXT 대표, 408-309-4084)

실행위원장: 강순영 (310-995-3936), 심상은 (714-722-4805)

사무총장: 강태광 (323-578-7933)

홈쇼핑월드

확장이전 기념 무빙세일

웹사이트 주소
hswus.com

세일 기간 | 03.22(금) - 03.25(월)

바디프랜드 팔콘 로봇 마사지체어
독점계약체결 기념 가격파괴 세일!!

바디프랜드
팔콘 로봇
마사지체어

홈쇼핑월드 독점
특별세일 가격!!

\$4490.00
(일시불)



WOW

초대박 물지마 무빙세일!!

아시아종묘
한국산
씨앗
60g
~~\$4.99~~
\$1.99



NAISTURE
코리안 뷰티
마스크 세트
6종
~~\$12.99~~
\$1.99



*1인 5세트 한정

바다로 21
도시락김
16봉
~~\$9.99~~
\$4.99



한국산
아스파라거스
차 (삼각티백)
20개
~~\$8.99~~
\$3.99



매실플러스
유기농
매실진액
~~\$16.99~~
~~\$12.99~~
\$8.99



광동제약
저분자
콜라겐
30포
~~\$39.99~~
\$12.99



심심산천
도라지청
150g
~~\$44.99~~
\$12.99



한국 치과협회
아쿠아
워터픽
~~\$89.99~~
\$29.99



정관장
홍삼원 골드
60포 (2개월분)
~~\$179.00~~
\$95.00



* 사은품: (2박스 구매시 → 홍삼절편 5분 + 산삼한 10환 무료증정)

초대형
라니그릴
300g
~~\$229.00~~
\$149.00



* 사은품: (부탄가스4개 * 2세트 → 총 8개 무료증정)



LA 올림픽지점 (213)380.3330/3307
3071 W. Olympic Blvd, LA, CA 90006
올림픽 + 아드모어 (구 김윤성 자동차 자리)
자동 주문 전화 1-855-818-0050

OC 부에나파크지점 (714)522.2494/2496
5300 Beach Blvd #118 Buena Park, CA 90621
비치 + 델번 BANK OF HOPE 몰
자동 주문 전화 1-855-818-0050

*광고내용 중 오타가 있을 수 있으며 본 상품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각 매장 상황에 따라 상품의 판매 수량과 세일 가격이 변경 및 제한될 수 있으며 조기 품절될 수 있습니다. *There may be a typo in the content of the advertisement, and the image of this product may be different from the actual one. *Depending on the situation of each store, the sales volume and sale price of the product may be changed and restricted.

진유철 칼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봉사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앨버트 하버드’가 쓴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에세이는 1913년 통계로 4천만권이 팔렸고 지금까지 1억 부 이상이 팔린 엄청난 책인데, 내용을 짧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1898년 아메리카 대륙에 진출한 스페인과 미국의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 정부는 쿠바의 반군지도자인 가르시아 장군에게 급한 편지를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당시 가르시아 장군은 쿠바의 산속 요새에 은거하

며 스페인과 게릴라 전투를 벌이던 상황이라 그의 정확한 위치는 커녕 생사도 알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 편지를 제대로 전달할 사람이 있을까?’

미국 대통령이던 매킨리는 편지를 전달할 사람을 수소문할 때,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추천한 사람이 바로 로완 중위였습니다. ‘각하, 가르시아 장군에게 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로완 중위뿐입니다.’ 대통령 앞에 불려나온 로완 중위에게 말합니다. ‘이 편지를 가르시아 장군에게 전해 주게.’ 그러자 로완 중위는 매킨리 대통령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홀로 쿠바로 떠났습니다. 중남미의 정글과 전쟁하는 군대 사이를 지나 쿠바로 가는 그의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생사를 건 사투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보트에 몸을 의존한 채 쿠바 해역에 도착해야 했고, 산채를 옮겨 다니며 전투를 벌이는 가르시아 장군의 행적을 찾아 적의 총알이 빗

발치는 정글을 헤매야 했습니다. 그러나 로완 중위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만을 생각하며 묵묵히 충성스럽게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3주 후 로완 중위는 가르시아 장군에게 성공적으로 편지를 전달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시대가 어지럽거나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일수록 ‘로완 중위’와 같은 충성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희교회는 말세의 고난이 더해가는 시대에 주님이 주신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의 선교사명과 ‘다음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지난 금요일 12분의 새로운 임직자를 세웠습니다. 성경은 하늘나라에 충성된 청지기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아서 봉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

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벧전4:10-11) 교회는 예배공동체이며 기도공동체를 알고 모든 청지기들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사와 은혜와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서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복’이 신앙생활의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거짓말 중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저절로 좋아진다는 착각인데, 아닙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도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성장할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은 오히려 첫사랑을 지키는 것이고, 언제나 초심의 태도로 말씀에 대한 순종을 ‘반복’하는 것만이 실력이 됩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심을 믿고, 첫 사랑과 초심의 태도로 ‘철, 치, 끝’ ‘반복’을 이루어 주님이 찾으시는 충성된 청지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

센트럴신학 단상

교회 속의 문화 소비주의



정 신 찬 교수
센트럴신학대학원 겸임교수

혼자가 익숙해진 사회 속에서 인터넷 동영상 시청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홀로 있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YouTube를 시청하는 시간 또한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2022년도 9월에 한국에서의 유튜브 이용자들의 월평균 시청시간이 월 32.9시간이었다고 한다. 10대 이하의 남성의 경우는 45.2시간이라는 것이다. 틱톡이나 페이스북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동영상 시청에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 조사가 2년 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시청시간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넷플릭스 (Netflix), 디즈니플러스 (Disney+) 와 같은 OTT 플랫폼의 확대를 통해서 수많은 콘텐츠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접하고 있다. 그래서 팬데믹 이후 달라진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콘텐츠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시청하고, 새로운 취미와 관심 분야에 관한 양질의 콘텐츠를 선택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여행이나 먹방과 같은 콘텐츠를 통해서

대리 만족을 얻는다. 이러한 문화 소비주의에 익숙해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소비자가 되어 버렸다. 팬데믹 기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새로운 신앙생활의 패턴에 성도들이 익숙해지면서 오늘날에도 주일이 지나고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설교 영상, 예배 영상, 찬양 영상이나 다양한 기독교 주제를 다루는 강의나 세미나를 시청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졌다. 물론 많은 영상 매체를 통해서 신앙의 유익을 얻지만, 문화 소비주의가 교회 깊숙이 들어와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다. 그 중에 몇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문화 소비주의가 지나친 자기 중심적 사고에 치우쳐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 (Self-centered religious life)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자아 중심으로 사고하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객관적 판단의 부족: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은 종종 객관적인 판단과 비판적인 사고를 방해할 수 있다. 개인이 경험한 신앙과 신념이 중심이 되어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다 보면 다른 의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게 된다.

• 사회적 소통의 부재: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소통에 제약을 줄 수 있다. 대화의 기술이 부족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 타인에 대해 배타적: 자기 중심적인 신앙

생활은 다른 사람과 다른 의견에 대한 배타적인 경향이 있다. 그래서 타인의 의견을 배타적으로 대하거나, 교회 안에서 다양한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정죄하기 쉽다.

• 이기주의적 신앙생활로 변질: 이러한 자기 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결합하여 이기주의적 신앙생활로 변질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신의 이익과 신앙의 유익을 찾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지나친 소비주의의 관점에서 자신의 신앙의 유익을 추구하고,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이기주의적 신앙생활로 변질되어 간다는 것이다. 문화 소비주의의 영향으로 지나친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은 배타적이고 객관적 판단을 흐리게 하는 요인이 된다.

둘째는 문화 소비주의로 인해 교회 안에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성을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 실천적 신앙 생활의 어려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신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공동체에서 이탈하면 우리의 신앙을 실천하기가 어려워진다.

• 신앙의 방향성 상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성장한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열매 맺도록 지도해준다. 하지만,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면 이러한 신앙의 방향성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 고립과 외로움: 소비주의 입장에서 신앙

의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지만, 공동체에서 벗어나면 고립과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

• 지속적인 신앙생활의 어려움: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련이 올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속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는다. 누군가의 위로의 말과 서로를 향한 기도로 힘을 얻는다. 그러나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면, 이러한 격려와 위로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문화 소비주의가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로 변질되어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과 배려를 상실해 가고 있다. 소비주의 입장에서 많은 신앙적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기 쉽다. 바울은 개인의 신앙 생활과 더불어 공동체의 신앙 모두 중요하며 조화 있게 가야함을 피력했다:

20년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20-22)

우리 한 개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고전 3:16)인 것과 동시에 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속하여 각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되어져 가야 함(엡2:21)을 기억해야 한다. 문화 소비주의가 이 균형과 조화를 깨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거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 1-877-580-2424 ☎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믿을 수 있는 최고의 의료진

서울 메디칼 그룹

호그 병원
Hoag Hospital

애너하임 리저널 병원
Anaheim Regional Medical Center

세인트 주드 병원
ST. Jude Medical Center

시더스 사이나이 병원
Cedars-Sinai Medical Center

UCLA 병원
UCLA Medical Center

세인트 조셉 병원
ST. Joseph Medical Center

할리우드 차병원
Hollywood Presbyterian Medical Center

SEOUL MEDICAL GROUP

U.S. 최고의 대형병원들과 함께합니다.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크리스천의 언어와 영성

나의 말에 '그리스도의 향기' 얼마나 나는가?



언어의 영성

마르바 던 | 오현미 역 | 좋은씨앗 | 296쪽 | 16,000원

이 책은 "하나님의 속성", "인간과 세계가 하나님을 왜 필요로 하는가?", "하나님의 행위"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분에서 17개, 21개, 35개 등 총 73개의 신앙 단어와 개념들에 대해 언어 사용 회복 논의들이 다루어진다.

이 책을 제대로 읽음으로써 독자들은 자신들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신앙 용어들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성찰해 보고, 이 책이 가져다 주는 희망의 메시지를 상기시키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참 흥미로운 제목이었다. '언어의 영성'이라니. 부제 '오염된 신앙 언어의 회복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것들'이 하나의 힌트를 제공했다. 이 책은 언어학이나 신학을 언어로 정리한 책이기보다, 현재 잘못 사용되고 있는 신앙 언어를 바로잡는 내용일 것이라 추측이 가능했다. 마르바 던은 기독교 윤리학과 성서학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고 신학자, 저술가, 교회 음악가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젊은 세대에게 영향을 주었고, 이 책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신체적 질병과 장애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앙 지식을 삶에 실천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었다(2021년 소천). 그녀는 유진 피터슨과 함께 책을 쓰기도 했는데, 그 외에도 제법 많은 책이 국내 소개되었다. 책을 다 읽은 후, 이 책이 어떤 책이냐고 물을 때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다. 차례만 훑어 보면, 1부 하나님의 속성, 2부 인간과 세상에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 3부 하나님의 행위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님, 예수님, 인자, 말씀, 성부, 성령, 원죄, 교만, 심판, 사탄, 지옥, 창조, 성육신, 시험, 대속, 구속, 칭의 등 조직신학 책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주제를 담고 있는 책처럼 보인다. 하지만 들어가는 글에서 저자가 밝힌 것처럼 "이 책은 교리를 설명하는 조직신학서나 성경의 주해서가 아니다"(11쪽). 저자가 자신의 한계와 다루고 있는 과업의 거대함을 인정하면서 밝힌 이 책의 목적은 "언어라는 것에 대해 계속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자극제"가 되는 것이다(21쪽).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되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향해 더 깊은 사랑을 품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저자는 간절히 바란다(21쪽).

저가 인간에게 속한 모든 것을 오염시킬 때, 인간의 삶과 관계, 영원한 운명뿐만 아니라 언어도 오염시켰다. 우리는 영미권에서 'God'이나 'Jesus' 등이 너무 무의미하게 사용되는 것을 본다. 심지어 매우 망령된 방식으로 사용될 때가 많다. 저자 마르바 던은 여러 신앙 언어를 진지하게 점검해 보기를 원한다. 교회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이 사용하는 여러 신앙 언어가 어떤 식으로 오용되고 있는지, 실제로 우리가 회복시켜야 할 언어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렇게 할 때 단지 신학적 의미만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향해야 할 바른 길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저자는 믿는다. "나는 현대 기독교 신앙에서 언어가 오염되는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잘못된 신학을 말하면 신학적으로 잘못 살게 된다. 우리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신앙 공동체들이 우리의 신앙 유산 가운데 의미심장한 단어들을 배척하거나 오용할 때, 우리 기독교는 위축되거나 쇠약해진다(16-7쪽)". 이 책은 어떤 의미에서 매우 느린 속도로 읽을 필요가 있다. 내용이 어렵고 깊고 고찰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저자가 바로잡으려는 각각의 신앙 언어를 단순히 읽어버리는 것보다 하나하나 멈춰 정갈 그 용어가 어떻게 오염되었는지, 기독교 혹은 독자 스스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볼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저자가 문제를 제기하고 성경의 관점에서 용어의 의미를 되찾



©픽사베이

려야 할 때, 그 필요성에 절감하고 동시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자는 몇 가지 전제 아래 이 작업을 진지하게 진행한다. ①전통적·정통적·보편적 신앙은 믿을 만 하고 ②신앙의 본질은 달라질 수 없으며 ③신앙은 무작정 수용될 수 없고(많은 고민과 씨름, 교정이 필요하다는 면에서) ④신학은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성도들이 애써야 할 문제이고 ⑤믿음의 조상들에 의해 내려온 기독교 신앙의 전통은 가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자는 전통적이고 본질적인 신앙 언어의 특징을 성경을 통해 되찾고 살리기 위해 노력한다. 어떤 사람에게 마르바 던의 <언어의 영성>은 지극히 개인적인 책으로 와 닿을 수 있다. 여러 주제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체계화하거나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가

진 내용을 정리한 전문적이 아니라, 저자가 느끼는 오염된 신앙 언어의 문제점, 그리고 저자가 생각할 때 성경적으로 되찾아야 할 언어의 본래 의미에 관한 설명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삶에 적용되는 신앙 언어를 강조하면서 저자는 신앙의 실천적인 측면을 자기 간증과 더불어 자주 제시한다.하지만 바로 이런 특징 때문에 독자는 저자의 방식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언어를 생각할 때 계속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며, 어떤 신앙 언어를 사용하든지 그 의미를 분명히 하고 개인과 이웃의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독자가 저자의 본을 따라 자신만의 노력, 언어의 영성을 성경으로 되찾는 일에 정진하는 일에 이 책이 유익을 끼치기를 간절히 바란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3월, 작가들의 말말말

■마이클 W. 고헌 & 크레이그 G. 바르틀로뮤 - 온 세상에 대한 참된 이야기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의 참된 이야기가 존재한다고 믿는데 그것은 성경이 들려주는 이야기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반역으로 시작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예수와 교회를 지나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 도래를 향하여 움직인

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나사렛 예수가 있으며 하나님은 그를 통해 온 세상을 향한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시고 성취하신다. 이 이야기만이 인간의 역사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과 모든 문화에, 따라서 당신의 삶과 나의 삶에도 참된 의미를 부여한다. 이 같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자리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창조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창세기의 첫 장들은 오래전에 쓰였고 당시의 문화는 우리의

문화와 매우 달랐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등장하는 창조 이야기 중 일부가 우리에게는 기이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 이야기들을 처음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저자가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심상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창세기 첫 장들이 쓰인 고대 세계의 배경에 비추어 그것을 읽을 때 우리는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한 강력한 메시지를 발견하기 시작한다.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2024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대학(AA), 목회학사(M.Div.), 상담학사, 선교학사, ESL, TESOL
- 영양정부 승인 SEVIS I-20 지체 없음
- 인수 후 마우 및 원지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762)622-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 ATS, ABHE 정회원
- 온-오프라인 통합 블랜디드 수업
- I-20 발행 후 각종 장학제도
- 학자금 지원 (Col & Post Grants)

학부 | 신학, 글로벌경영학, 가정상담학, 교육학, 중국어 신학
석사 | 목회학, 목회학 원목집중과정, 목회학 교칭집중과정, 선교학, 상담심리학, 전문교칭학, 중국어 선교학, English M.Div.
박사 | 목회학, 선교학, 선교학철학, 상담심리학

입학문의: (562) 926-1023, ext. 300 www.ptsa.edu
주소: 15605 Carmentis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증
- 특 전: Sevis I-20 발행/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학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B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 (626) 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laurahello@gmail.com
전화: 1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 9547 EXT.#112/admin.kor@itsla.edu

“목회의 위기를 극복하게 해준 ‘독서’ 교회 위기 극복에도 도움될 것”

[기독교일보 20주년 인터뷰] <열혈독서> 저자 제자들교회 박종순 목사



제자들교회 담임 박종순 목사

미주 기독교일보가 창간 20주년을 맞아 미주 각 지역에서 성실히 목회하고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고 한인 목회자들의 고군분투기를 기록한다. 렌초 제자들교회는 박종순 목사가 2011년에 개척해 현재 렌초 쿠카몽카 지역을 중심으로 LA 동부, 인랜드, 리버사이드, 코로나, 빅터빌 지역을 섬기고 있다. <열혈독서> 등 최근 총 4권의 책을 펴낸 박종순 목사는 목회의 위기 때 3천권을 읽는 다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목회에 새로운 활력을 얻어 힘차게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그는 독서는 목회에 있어서 큰 해법을 주는 방법이라고 조언하는 한편, 한국교회의 위기 또한 극복할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 렌초 지역에서 목회한지 13년이 됐다. 개척부터 현재 까지를 돌아본다면.

제 목회를 스스로 돌아볼 때 10년 이상 버틴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생각이다. 2011년에 교회를 개척하려 왔을 때 이 일대는 농장지대에서 막 개발이 시작되고 있었다.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 지역이었다가 지금은 아마존 헤드쿼터가 들어서면서 젊은층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세대구성에 있어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 정도로 급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원래 저는 계획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었다. 어떤 목표를 정하면 미친듯이 추진해서 결과를 꼭

만들어내야 하는 성향이였다. 개척 초기에도 정말 공격적으로 목회 퓌대와 성도수에 대한 목표를 세웠고, 또 이것을 실행하면서 개척 1년만에 2백명이 출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제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게 됐다.

지금도 목회에 있어 목표는 있지만 전과 같이 이것을 저 혼자만의 목표로 정하지 않는다. 성도들과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함께 목표를 정하게 됐다. 목표보다는 그 의미가 좀 더 중요한 것을 알게 됐고, 그 의미를 함께 만들어 낼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최선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렇게 바뀌고 나니 사람을 대하는데 있어 여유가 생겼고, 목회에도 한결 여유가 생겼다.

그 전에는 막 쫓기는 것 같이 사역을 했다. 부교역자를 모아놓고 목표를 제시하고 다그쳤었다. 지금은 좋은 목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목회에 있어 꿈을 꾸지 않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교회 성장과 좋은 방향성을 지향하지만 그것을 쫓다가 더 좋은 것, 더욱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 <열혈독서>의 저자로 한국에서도 꽤 알려져 있다. 3천권을 읽은 후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고 책에서 썼는데 목회에도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인가.

앞서 말한 목회에서의 우여곡절 이후 현재의 여유를 가지기까지는 독서라는 큰 전환점이 있었다. 제가 독서를 강조하게 된 계기는 <열혈독서>에도 그 내용이 있지만 멘토인 이동원 목사님과 강준민 목사님의 영향이 컸다.

거기에서 개척 이민교회의 특성상 책상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았다. 이민교회 성도들에게 심방은 때로는 부담일 경우가 있다. 그래서 주중에 심방이 많지 않을 경우 어떻게 시간을 잘 활용할지 고민하다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 때는 목회도 너무 안되어서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절박한 심정으로 나무터라도 꼭바로 하자는 마음으로 본격적으로 독서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 독서를 많이 하고 난 이후 구체적인 변화를 이야기해달라.

일단 책4권을 쓰게 됐다. 책을 읽기만 하던 제가 책을 쓰는 사람이 된 것이다. 당초 3천권 독서를 목표로 한 것이 2017년이였다. 그 때부터 시작해서 지난 7년동안 3천권을 읽게 됐다. 새벽에 잠을 쏴서라도 독서를 하려고 했다. 책을 8백권 정도 읽었을 때 임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변화가 왔다. 책 읽는 노후가 생겼고 시중에 있는 책은 대충 그 내용이 이해가 됐고 읽기도 쉬워졌다. 저자의 의도와 책 내용을 매우 빠른 시간 안에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어떤 분야의 책을 30권 정도만 읽으면 특별한 정보가 담겨 있지 않는 한 큰 틀에서 내용들이 대동소이한 것을 깨닫게 됐다. 1천5백권 쯤에서도 이러한 임계점을 또 한 번 겪었다.



제자들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뒷줄 가운데에서 손가락 하트를 해보이고 있는 박종순 목사 ©기독교일보

그리고 2천권의 책을 읽었을 때 쯤 약간의 권태기 같은 것이 왔다. 처음에는 책을 읽을 때마다 열정이 타올랐는데 그런 열정이 점점 느끼기 쉽지 않았다. 책을 많이 읽은 만큼 밖으로 그것을 쏟아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그 때부터는 책도 함께 쓰게 됐다. 그동안 다독을 하다 보니 이제는 읽는 속도도 크게 붙었고 하루에 한권의 책을 목회를 하면서도 쉽게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 몸살이 날 정도로 열심히 했던 독서였고 그 과정에 체력도 부치고 했지만 저의 목회에 너무도 큰 도움을 줬다.

▷ 독서가 목회의 어떤 부분들에도움이 되었던 것인가.

가장 큰 변화는 먼저 제가 변했다는 것이다. 목회스타일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줬다. 그 전에는 제가 성도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강한 고집이 있었는데 독서를 통해서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얼마나 내가 무지한 사람이었는가를 독서를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됐다. ‘내가 이 쥐꼬리 같은 것만 가지고 뭐하냐’ 하는 것을 알게 됐다. 오만으로 목회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은 제 스스로 또는 제 능력으로 누구를 변화시키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한다. 변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독서 이후 무슨 일이 닥칠 때마다 저의 무지와 부족함을 더욱 여실히 느끼고 있다.

표를 정해서 그것을 위해 초집중을 했고 생각해보면 성도들도 사나웠다고 느껴진다. 뭔가를 쟁취하는 것 같았고, 그 과정에 상처도 주게 됐다. 교회 안으로는 가시적인 결과가 보였지만 항상 투쟁적이었다. 그래서 다들 거칠고 화가나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변하니까 성도들도 순해졌다. 화평해 졌다. 이제는 교회가 싫고 목회자가 싫어서 떠날지 언정 싸우고 분열되어서 나가는 일이 없어졌다. 교회 개혁은 결국 목회자 개혁이라고 본다.

제가 독서를 하다보니 한 주제에도 책이 수백권, 수천권이 나오는데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경험과 삶에 근거한 많은 생각들을 들여보지 않고 한가지만 고집한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것인가

▷ 독서 이전의 목회 스타일이 궁금하다.

한참 정신없이 목회할 때는 밤 11시까지 목양일을 하고 잠깐 집에서 눈을 붙이고는 다시 새벽2-3시에 교회로 나가곤 했다. 그러나 독서 이후에는 목회에 있어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가치를 놓치면 안될 것 같아서 균형을 잘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완벽한 균형이란 없겠지만 최대한 균형 잡힌 삶과 신앙을 저부터 유지하려고 한다. 그리고 목회에 있어서도 균형 있게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게 됐고, 그리고 가끔씩 여러사람들의 생각을 수용할 수 있게 됐다. 제가 처음 목회할 때는 뭔가 목

를 깨닫게 됐다. 목회자들이 어떻게 보면 고집스럽다. 책 한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했다. 독서가 가져다 준 다양한 시각과 균형 감각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3천권 중에는 한국교회를 진단하는 책들도 많았을 것 같다. 한국교회가 안팎으로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생각을 나누다면.

독서를 하고 난 이후 느끼게 된 것은 한국교회의 영향력 감소 중 한 원인은 세상을 선도할 수 있는 인문학적 수준이 많이 약화됐다는 것이다. → 19면에서 계속

집안의 대를 이어 나가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할머니 손 맛 그대로!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 맛!
최고급 고기만을 엄선!

송영 투크 설렁탕

단체주문 환영
T.(213)277-1339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예수 부활 하셨네

미드웨스턴 침례신학교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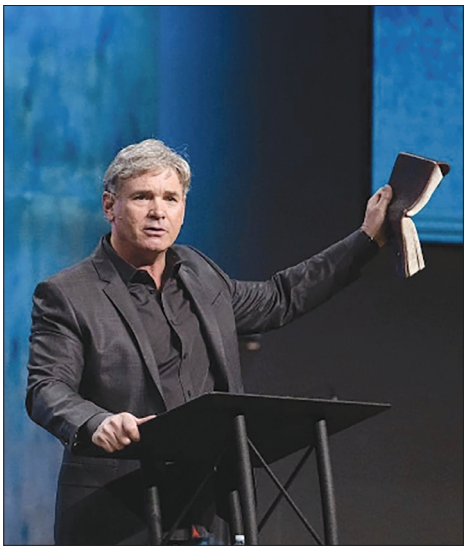
- 남침례교단 6대 신학교
- 720명의 한국 학생 재학중
- F-1 학생들을 위한 I-20 발급
- 100%까지 온라인으로 가능
- 신약학 철학박사(Ph.D)
- 성경사역학 철학박사(Ph.D.)
- 교육학 박사 (Ed.D.)
- 교육목회학 박사 (D.Ed.Min.)
- 목회학 박사 (D.Min.)
- 목회학 석사 (M.Div.)
- 성경상담학 석사 (MABC)
- 기독교교육학 석사 (MACE)
- 신학연구석사(MTS)
- 워싱턴미네소타(MTS-WM with 어노인팅, 아이자야씩스터원, 워싱턴크라리스트)
- 교회미디어 사역자 양성 과정(CMM)

박성진 학장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5001 N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인터넷 홈페이지 www.mbts.edu/ks

“하마스, 시민들을 전쟁 도구로 이용” ... 미 대형교회 목사의 경고



잭 힙스 목사 ©잭 힙스 페이스북

미국 대형교회 목회자가 이슬람 테러 조직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인들을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갈보리채플 치노힐스(Calvary Chapel Chino Hills)의 잭 힙스(Jack Hibbs) 목사는 17일 주일 설교에서 ‘

진원지 이스라엘: 중동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2부작 시리즈 중 첫 번째 설교에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 언급했다.

힙스 목사는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의 구원과 하마스에 의해 그들의 삶이 납치당한 팔레스타인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서 “이는 매우 민감하고 슬픈 상황이다. 하마스는 현재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책임이 있다. 우리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비극적이게도, 우리의 국가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잊었고, 대학 캠퍼스들은 고의로 이를 무시했다. 하마스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불모로 삼고 있다”며 “역사적으로 항상 여성과 아동, 어린이집, 병원 뒤에 숨어 일을 해왔듯이, 지금도 팔레스타인인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의 마음은 그들과 함께 한다. 하나님께서 이 테러 행위와 아무 상관 없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구원과 희망과 평화를 가져다주시기를 바란다”라며 “비극적이게도, 그들은 전쟁의 수단과 무

기로 이용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힙스는 “나는 이스라엘이 흠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힌 뒤, 성경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의 표현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다. 힙스는 이스라엘 국가가 성경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이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그는 “성경의 예언과 예언서들은 지구상의 단 하나의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진원지이자 주요 무대”라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가나 정치에 관한 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 점이 여러분의 주의를 끌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국가를 파괴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한 점을 언급하며 “유대인과 이스라엘 국가를 다룰 때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편 121장 3-4절 등 성경의 여러 구절을 인용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국가를 보호하시고,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과 디아스포라(diaspora, 이산) 속에서도 견디

도록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힙스는 “이스라엘의 존재는 중요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천국으로 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당신이나 나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으시다”고 전했다.

작년 10월 7일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여러 차례 공격을 가해 미국인 31명을 포함한 대부분 민간인인 최소 1200명을 살해하고 약 240명을 인질로 잡았다. 무장정파 하마스는 2007년부터 가자지구를 통제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에 대응하여 하마스 타격과 인질 구출을 위해 가자지구에 군사 작전을 감행했다. 하마스가 운영하는 가자 보건국은 군사 작전 이후 3만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통계는 민간인과 무장세력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며, 사망자 수가 부정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는 테러 단체가 제공한 수치의 진위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바이트 행정부의 관계자들은 가자지구의 사망자 수가 인용된 숫자보다 높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유진 기자

→ 18면 기사 <목회의 위기를...>에 이어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변화된다. 성경이 다른 어떤 책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것을 상황에 맞게 해석하는데 있어서는 지적 능력이 필요하다. 제가 다양한 독서도 필요하다고 책에서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과거 한국교회 초기나 부흥기에는 일반적인 사람들, 즉 성도들의 기본적 소양이 목회자들보다 못했다. 목회자들은 적어도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그 시대에 다른 보통 사람들보다 많은 책을 읽거나 배운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지도자의 역할을 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일반 사람들의 지식의 수준이 매우 높아졌다. 인문학적 수준 또한 목회자들보다 높은 사람들이 태반이다. 교회 전체의 지적 능력이 세상보다 못하게 되면서 사회에 방향을 알려줄 수 있는 지도력을 잃어버렸다. 당장 한국의 교보문고나 영풍문고에 가보면 베스트셀러에 기독교자가 없다. 김형석 교수, 이어령 교수의 저작들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젊은 기독교 작가들은 없고, 베스트셀러 20위 안에 스펀만 10명이 넘는다.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나게 됐

지 생각해보면 결국 인문학적 소양의 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스님들은 책을 정말 많이 읽는다. 신부님들도 교육수준이 목회자들과 많은 차이가 난다. 로스쿨 이상의 수준으로 공부해야만 사제 서품을 얻는다.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결국 기독교 내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글로 우리의 생각을 대변하거나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여기에서 한국교회는 뒤쳐지기 시작했다. 우리 안에서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야 할 때다.

-한국교회의 위기를 인문학적인 앵글에서 진단하는 것이 매우 새롭게 다가온다. 과거와 현재의 교회가 다른 점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한국교회가 요즘 보면 끈대 이미지가 있는 것 같다. 이것을 벗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은 세상에서 교회를 볼 때 오만하고 독선적이라고 보는 경향이 커졌다. 과거 1970년대 교회를 생각해보면 가장 앞서가는 선두그룹이야말로 교회였다. 교회에 가야만 영화를 볼 수 있었고, 또 피아노 치고 기타 치고 드럼을 배

울 수 있었다. 문학의 밤이 있어서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 친구들도 데리고 와서 선도했다. 그런 힘을 지금은 잃어버렸다.

저는 그 해법을 목회자가 책을 읽는 것에서부터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을 선도하는 힘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 1세기에 크리스천들이 글을 읽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힘이었다. 그 때만 해도 글을 읽는다는 것은 고급 정보를 습득한다는 것이었고 시대를 선도하는 엘리트라는 뜻이었다. 그 술한 펍박 속에서도 기독교가 살아난 것은 바로 글의 힘, 기록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출간된 <목회트렌드 2024>는 한국교회의 여러 저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집필을 했는데 이 책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

결국 목회자가 변화되고 준비되면 교회 또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여러 저자들로 책을 구성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함께 생각들을 모으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라서다.

다양한 목사님들과 교류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라는 점이다. 우리가 텍스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것은 교회의 브랜드와도 연관이 있다. 교회가 무슨 브랜드냐고 하겠지만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모두 텍스트를 각자의 상황에 맞게 특성화하고 전환 결과다. 코로나 이후에 본연의 색깔이 있는 교회는 살 것이라고 본다.목회자들의 의식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 제가 한국과 미국 두 곳에서 모두 공부를 했지만 서로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 미국은 공부한 것을 생각해서 글을 쓰게 한다. 자기 생각을 반드시 글로 남겨야 한다. 교수들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작성자의 생각이다. 하지만 한국은 이런 글쓰기 훈련이 안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한국 목회자들이 설교들도 중구난방이고 논리적이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많다.

빌게이츠도 독서광이었다. 스티븐잡스 또한 문자를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을 비즈니스에 적용해 대혁신을 가져다 줬다. 그런 부분들을 교회가 잘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본다. 성도들이 하루에 한권의 책을 읽게 하는 것이 목표다. 김대원 기자

출산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RACHEL KIM
PNG 홈스쿨 컨퍼런스 강사
PSA, Classical Conversations,
Christian Hybrid Homeschool 12년
In process Master of Marriage and Family Therapy

기독교 홈스쿨 베이직 세미나

무너져가는 공교육 현실의 대안

일시 1차 2024년 4월 9일(화), 2차 4월 16일(화) 10:00 am (PDT)

대상 홈스쿨 관심 학부모, 홈스쿨 예정자, 자녀양육 관심가정

내용 1차 세미나 - 공립학교의 현실 / 왜 홈스쿨인가? / Q & A
홈스쿨의 시행착오 / 홈스쿨 어떻게 시작하는가?
2차 세미나 - 홈스쿨 스타일 / 커리큘럼 소개 / 연령별 교육
홈스쿨과 대학진학 / Q & A

등록 RSVP 등록마감 by March 31

비용 참가비 \$20 / Family

주최 마음공간 Life Coaching Space

T. 213-332-0420 / lifecoachingspace@gmail.com

2024 부활절 캠페인



〈고난, 치유와 희망〉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시편 140편 12절



전 세계는 지금 전쟁과 재난, 갈등과 핍박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곳에 교회와 기아대책이 함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치유와 희망의 소식을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전해주세요

희망친구 미주기아대책(KAFHI)

Pay to the Order of KAFHI (Memo 부활절 캠페인)

주소 | 411 Kingston Ct. Mt Prospect IL 60056

문의 | shchung@fh.org (703) 473-4696

